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	행	인	안	병	만
편집인겸주간			박	재	우
편	집	장	고	병	권
인	쇄	인	송	재	봉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외 대 학 보 (서울)961-4152, 4466 FAX)961-4183
학생기자실 (용인)0335-30-4112(FAX겸용)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

1996년 5월 20일(월) 제667호 THE OE DAE HAGBO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주간〉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찢겨진 대자보… 책임있는 해명 뒤따라야

용인 22일 공식적인 협상창구 마련

지난 14일(화) 밤 학생처 직원들이 재단관련 대자보를 찢어버렸다. 이에 총학생회는 학생처의 공개사과와 학생처장 퇴진을 요구하며 학생처장실 집기를 들어냈다. 고영진 기자

지난 14일(화) 학생처장을 비롯한 학생처 직원 8명에 의해 철거된 대자보 사건으로 인해 학내 등록금 인상저지와 교육재정확보투쟁의 열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재단의 내용을 담은 대자보를 사전 합의 된 것과는 달리 직접 철거한 학생처에 대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이튿날(15일) 도서관앞 상설무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등 연일 학내 집회를 열었다. 16일(목) 노천극장에서 대동제 폐막식에 맞춰 열린 '부당한 등록금 인상저지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는 전날 학생처 명의로 날아온 경고문을 반박하며 학생처의 공식사과와 재단의 자산내역공개를 요구하며 법인사무실 항의방문을 하고 학생처장실 집기를 도서관 앞으로 들어냈다. 학생처 항의방문을 갖는 과정에서 학생처장은 '공개사과'하라는 300여명의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대자보를 훼손한 것은 사과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과할 수 없다"라고 이전의 내용을 끝까지 고수했다.

이날 집기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직원과 학생들사이에 감정적으로 대응해 다소 거친 모습도 보였다.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대학당국이 처음으로 '대화'라는 협상테이블을 마련했으나 대자보 훼손이란 물리력행사를 단행한 이번 사건은 앞으로의 협상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총학생회는 지난 17일(금) 제5차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20일(월)부터 3일간 외대사랑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내기들 중심으로 외대발전에 대한 교양과 토론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24일(목)부터 있을 출범식공간을 앞으로의 투쟁을 결의하는 장으로 마련할 것이다.

용인캠퍼스 등록금투쟁(등투)이 오는 22일(수)을 기점으로 대학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투쟁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 16일(화) 부총학생회장 및 7명의 중앙운영위원(중앙운위)들과 총장·부총장간의 면담자리에서 안병만 총장은 "빠른시일내로 책임있는 대학당국대표와 학생대표간의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단언했다. 이에 인문대 학생회장 김영기(언어학 4)군은 "그간 요구안과 관련해서 학교측과의 협상은 잦았지만 진전은 없었다"라며 "이후 마련되는 협상의 자리에선 대학당국이 성의있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2주전부터 집행해 온 등투 상황 소식지 '왕산사랑'을 꾸준히 배포하고 또한 각 건물에서 진행된 '이동총학생회'를 마무리했다.

또한 총학생회는 1개과 1개 요구안을 지난 17일(금) 모아서 이번 주내로 대학당국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요구안관철 상황판과 등투와 관련된 포스터·스티커를 학내 곳곳에 부착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모성훈(인문 사학 4)군은 "대학당국과 협상에서 쟁점으로 떠오를만한 요구안은 '5% 등록금 인상'부분이지만 끝까지 입장을 고수하겠다"라며 "대학당국의 입장변화에 따라 천막농성, 삭발투쟁, 혈서쓰기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라고 이후 결의를 밝혔다. 오는 22일(수)은 성의있는 협상약속하에 마련되는 자리인만큼 대학당국의 이후 1만 3,000공동요구안 관철여부 정도가 주목된다.

전명수·오은진 기자

부활하는 오월, 자주·민주·통일로

학살자 완전처벌·미국개입 공개사과 촉구

지난 17일(금) 광주 도청앞 광장에는 80년 5·18 민중항쟁을 연상케하는 인파가 몰렸다. 공중전화박스 위 등 인도에 설치된 시설물 위까지 사람이 가득 메웠다. '5·18 민중항쟁 제 16주년 전야제'에 참여하기 위해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 해외에서 온 시민·학생·노동자 7만여명이 모인 것이다. 이날 전야제는 오후 7시 5·18 당시 상황재현굿을 시작으로 4시간동안 세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광주여 빛이여'라는 주제로 시민단체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소속 대학생 1,000여명으로 구성된 대합창단이 오월의 노래를 부르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있었다. '항쟁의 도시'라는 기치를 건 2부 행사에서는 가수 양희은씨를 비롯해서 민중가수들이 노래로 광주를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3부 '오월 투쟁이다'에서 사회자가 시민을 만나면서 5·18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들었다. 또한 꽃다지, 광주민주노조문예연합 등이 공연을 했다, 끝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로 전야제를 마쳤다.

다음날 18일(토) 오전 10시 망월동에서는 '5·18민중항쟁 16주년 추념제'가 있었다. 추념제란 추모제와 기념회를 합친 형태로 이번에 첫 선을 보였다. 유교방식으로 5·18민중항쟁열사 영령 추모제가 치러지고 추념사 낭독이 있었다. 망월동 묘역은 올해 성지로 선포됐으며 고 노수석·강경대군 등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묻혀있다. 추념식이 끝난 후 헌화와 분향을 하다가 유족들이 오열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후 18일(토) 오후 2시 도청 앞에서 전국농민대회가 있었고 동시에 한총련 주최로 시민, 학생 뭠박질대회가 있었다. 이렇게 농민·시민·학생 등이 오후 4시 도청에 모여 '5·18민중항쟁 기념대회와 국민대회'를 했다. 이외에도 많은 행사가 17, 18일 이틀동안 치러졌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5·18민중항쟁 16주년기념 행사위원회 정구선(집행위원장)씨는 "오월정신을 승화, 발전시키기위해 '부활하는 오월, 자주·민주·통일로'라는 기치를 내건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11일(토)부터 2주일 동안 다양하게 치러진다고 밝혔다. 허윤숙 기자

빈의자

외대 사랑의 길

▲"학생여러분. 지금 학생처 직원들이 총학생회가 제작한 '재단의 거리' 대자보를 찢고 있습니다. 학내에 계신분은 지금 도서관앞으로 모여주십시오" 빠르고 격앙된 외침이 밤의 정적을 깨고 온 외대를 뒤흔들었다.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대동제 행사를 치루던 학생들, 잔디밭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학생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학생처직원들을 둘러싸고 '투쟁으로 다시 서는 나의 사랑 외대여~ '를 수없이 부르는 동안 시계바늘은 어느새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다.

▲9년전 50일이라는 외대초유의 장기농성, 92년도 20여일에 걸친 수업거부, 그리고 지금 이순간까지 '외대발전'요구는 시대적 격동기마다 뜨겁게 분출되어 왔다. 10여년이란 세월동안 학생들의 투쟁으로 도출된 합의서와 약속들만해도 손꼽을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몇개의 체육동아리가 뒤엉겨야 하는 좁은 운동장 하나, 콩나물 시루떡같은 막차버스. 어디 그뿐이랴. 어르신들을 희화했다는 이유로 대자보가 찢겨나가고 대낮에 학생이 뺨을 얻어맞으면서 '징계'가 무기로 둔갑하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학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 화려했던 발전상은 모두 '몽유도원도'였던 것일까.

▲누구나 외대발전을 이야기한다. 가난해서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없다는 재단까지도. 그러나 외대발전을 이끄는 동력은 1만3천 외대인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누구도 아닌 바로 나자신임을. 그러나 그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학생회 일꾼들이 나눠주는 유인물을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는 않았는지. 학내집회가 열릴때 팔짱끼고 멀리서 조소의 눈길을 보내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 "우리 총학생회는 왜 아무것도 안하는 거야?"라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던 우리들은 아니었던가.

▲"무참히 찢겨진 대자보를 보면서 대학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생각하면서요. 그러나 곧 현실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날 한 남학생은 떨렸지만 힘을 가득 실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 지금까지 현실의 벽을 탓하며 주저앉았다면 이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할 때다.

우리의 청춘과 승리가 푸른 교정에 빛날때까지. 곽근영

지면안내

충격고백, 찢겨진 대자보 …………3면
밤사이 다 찢겨진 대자보. 학생처는 왜 그래야만 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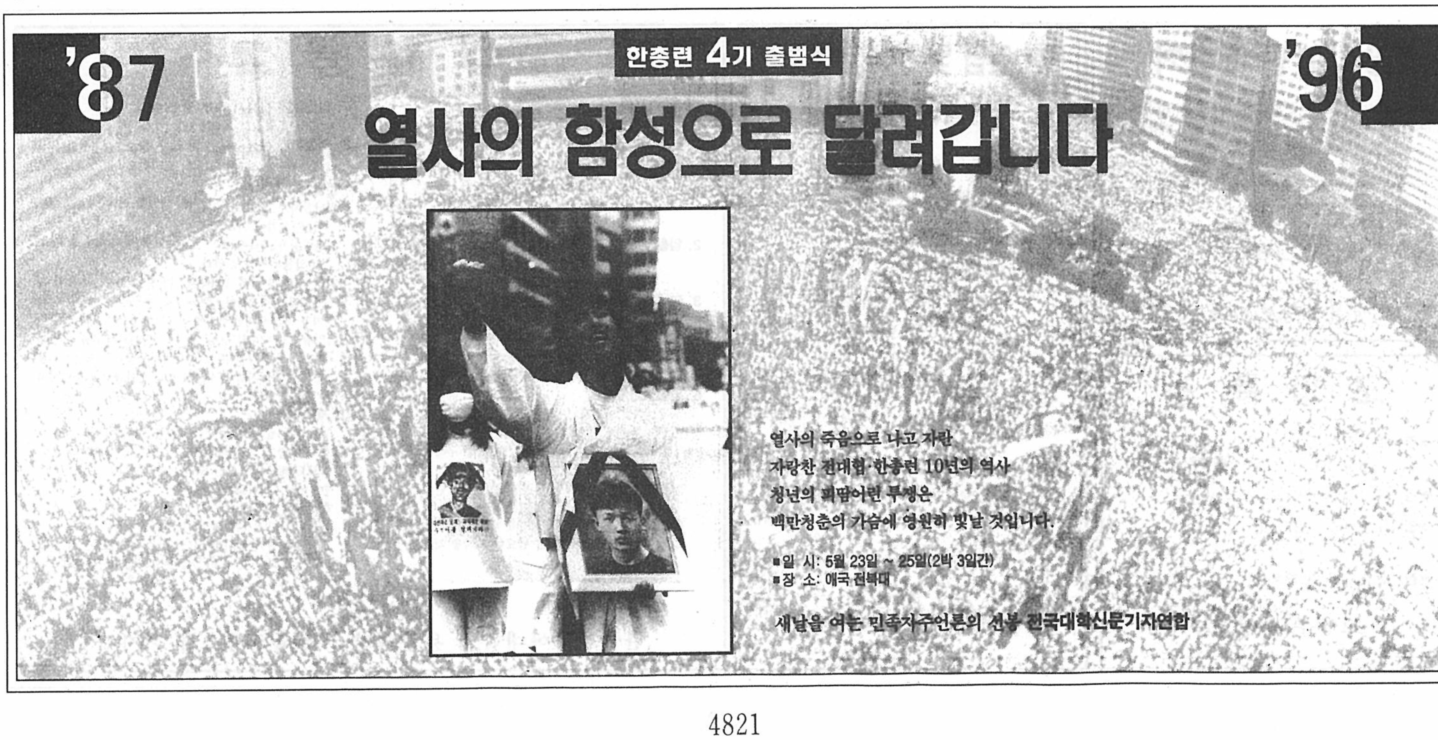
광주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네 …7면

5.18광주 민주화 항쟁 16주년을 맞아 광주를 다녀왔다. 광주시민은 아직도 80년 그날을 잊지 않고 있었다.

언론의 자유……………………………8면
시사뉴스의 기무사 감시 사건을 통해 한국언론의 현주소를 찾는다.

80년 5월…………………………………9면
16년이 지난 현재의 광주를 조명한다.

'교육대통령' 3년을 평가한다 …10면
김영삼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이땅은 지금 교육 '유토피아'



사 설

제2외국어 수능에 포함돼야

97년도부터 제2외국어가 대학입시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94년도 수능으로 전환할 때부터 배제되기 시작한 제2외국어는 6개 주요 대학의 본고사에 포함돼 명맥을 유지하더니 97년도부터는 본고사의 폐지로 그 나마 완전히 빠지게 된 것이다. 그 영향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에서의 제2외국어 교육은 이제 완전히 파행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기존의 이수 단위가 8단위에서 4단위로 축소되었고, 그마저도 대부분의 강의가 1학년만 넘으면 자습이나 다른 입시과목으로 대체되기 일수라고 한다. 어떤 선생님은 윤리 과목이나 기타 다른 과목도 병행하여 가르친다고 한다. 그 동안 세계화를 외쳐 온 정부가 제2외국어 수능 배제의 이유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는, 첫째로 실업 등 다른 과목들과의 형평성 문제, 둘째로 학생들에 대한 부담 가중, 셋째로 과목별 난이도 조정의 어려움 등이 있다. 그러나 난이도 조정문제는 각 과목의 평균점을 기준으로 삼아 통계학적 기법을 동원하여 조정하면 될 것이고, 실업 등 다른 과목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세계화'를 고창하는 마당에 외국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면 나오기 힘든 말이다. 또한 제2외국어를 수능에 있어 독립된 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학생부담문제의 주원인이 된다면 수능의 외국어 영역에 있어 영어 70% 대 제2외국어 30% 비율로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아예 영어와 제2외국어 중 하나를 선택토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영어 편향적 외국어교육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예컨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영어에만 치중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니, 중국·일본·러시아 등의 강대국에 에워싸여 있는 우리의 지정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 외국어를 골고루 해야만 21세기 정치 경제의 다각구도 속에서 우리의 중심축을 잡으면서 난국을 헤쳐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학문을 넘어서서 실무적인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세계화의 선두 기업이랄 수 있는 삼성은 이미 영어만 가지고 하는 세계화 전략의 한계를 느끼고 세계 각국의 현지어 습득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사원들에 대한 언어능력 측정을 위해 10여개 언어에 대한 자체 평가시스팀을 개발중인 것이다.

우수한 교수 임용을 바란다

영어로써 기본적 업무 수행은 할 수 있겠지만 세계 각 나라 현지에서의 어려운 일의 돌파는 역시 현지어를 통해야만 해결이 용이한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제2외국어 정책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어학원 등을 경영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육 개방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 대학의 분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날도 머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외국어교육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 외대로서 교육시장 개방은 점점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즈음하여 2학기에 대비해 또 다시 교수임용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우수한 교수요원의 확보가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중의 하나임은 감안할 때, 매학기 우리 대학의 교수 충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교수요원 모집에 있어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어문학과 지역학의 메카'를 지향하는 우리 학교의 특성에 알맞는 우수한 인재들을 엄선하여 선발해 달라는 것이다. 높은 '학문성'과 '사회적 기여성'이 결합된 우수한 교수 임용이 이루어질 때, 우리 대학의 특성있는 발전은 한 걸음 더 전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수한 교수들의 임용은 우선 임용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때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최근 「교수공정임용을 위한 모임」에서 "대학교원의 임용이 공정하게 되어야 대학이 발전할 수 있다"는 기치 아래 부정 사례를 고발하고 임용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대학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오던 문제이지만 개방의 드센 물결 앞에서 다시금 공정 임용을 통한 우수교수의 확보에 대한 결의를 굳혀야 할 것이다.

흡산의 소리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00자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눕시다.
원고마감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서울·용인 학생기자실로 오십시오.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받습니다.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OEDAE 모두 동일)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대자보 사건, 공개사과해야

연세대가 학원자주화 투쟁을 완전 승리 했다는 소식을 몇일 전에 들었다. '등록금 인상률을 기존 학교 당국의 방침이었던 16.7%에서 9.9%로 동결하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고 노 수석 열사의 뜻을 잇는 연대 학우들의 가열찬 투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로써 학교측도 학우들의 요구를 받아 안은 것이다.

하지만 외대는?

정녕 총학생회측이나 학생 간부만의 생각으로 지금까지 학자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다. 모든 외대인들이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외대발전을 하기 위해서 연세대만큼이나 아니 더욱 더 가열찬 투쟁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가운데 학교측이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사건이 이문벌 대동제 기간에 일어났다. 학생처 직원 및 처장이 재단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찢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 때 학생처장이 "몇 명 교수님들이 재단을 비난하는데 너무 인격을 모독하는 글들이니 처리해라"라는 항의를 받았다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학교측과의 대화로는 더 이상 진전은 없을 것 같다. 그 자리에서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교수님들에게 학생 도리로, 즉 이성적으로 등록금 인상 문제를 포함해서 기타 총학 요구안을 갖고 대화를 해 왔습니다"라고, 제자된 도리로서 그렇게 대응해 왔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의사 표명을 꺾는 것이었다. 이런 학교측의 처사에 분노를 하면서, 기필코 학자 완전 승리 사수를 바라면서, 1만3천 외대인의 한 사람으로 한 마디 외칩니다. 학교측은 공개 사과하라!

이승환(서학·영어 3)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학교

나는 집이 부산인 용인캠퍼스 3학년 학생이다. 처음엔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몹시 갑갑하여 서울에서 자취를 했지만 거의 4시간을 차속에서 보내는 것이 힘도 들고 불합리하게 느껴져 이번엔 학교 근처인 모현에다 거처를 정해 3개월째 지내고 있다. 그동안 너무나 심각히 느끼는 문제가 있어 공개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빨리 해결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

문제는 바로 모현과 학교를 잇는 학교 셔틀버스의 부재이다. 듣기로는 학생회와 학교로 들어오는 버스업자 간에 학생들이 그 버스를 셔틀버스삼아 이용토록 합의가 됐다지만 번번히 당하는 버스기사들의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과 그냥 지나치기 일쑤인 행동에 이젠 정말 짜증나다 못해 진절머리가 난다. 특히 며칠 전엔 많은 학생들 앞에서 등교시간이 바빠 모현에서 차에 오른 나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누구 맘대로 이 버스를 타고 다니냐며 큰 소리로 무안을 주었다. 또한 지난 토요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몸이 불편해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모현까지 간다며 차에 오르니 다짜고짜 의도적인 톤으로 "아줌마 왜그러냐"며 좌석 버스비를 다 내야만 한다고 했다. 학생회 얘기를 하니 누군지 자기앞에 당장 데리고 오라며 아예 말도 못꺼내게 했다. 다른 학교에서는 교내전용 셔틀버스는 물론 자취나 하숙집의 안내까지 도와준다는데 어느 학교보다도 비싼 등록금을 꼬박꼬박 내고 다니는 우리는 특히 용인캠퍼스 지방학생들은 날마다 자존심이 구겨짐을 느끼며 오직 더나은 시설과 행정이 갖춰진 학교로 가지 못한 나 자신만을 탓해야 하는지.

학교에서 애써 마련해 놓은 왕산-외대 승용차같이 타기 팻말만 믿고 20분이 넘도록 서서 손을 흔들어도 외면하고 달려가 버리는 자가용 주인을 탓해야 하는걸까?

우직하게 비가오나 눈이오나 바람부나 정문을 지나 꼭대기 강의실까지 30분씩 하루 두 번을 황량하기 짝이없는 풍경을 보며 우울한 기분으로 대학생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하는걸까?(그 곳을 걸어 지나가 본 이는 알 것이다. 얼마나 황량하고 음침하며 끝없이 긴지를)

학교가 단지 졸업장을 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닌 이상 학생들의 복지문제를 외면한다는 건 넌센스다. 외대가 21세기를 선도하는 선진대학을 만들기위해 외국학종합연구센터인가를 건립하는 거창한 계획을 세워 대내외로 떠들썩하게 기부금까지 조성해(우리 부모님께도 5번이상 공문을 보냈다) 추진중이지만 학교는 조그마한 셔틀버스 한 대가 얼마나 간절한지는 상상도 못하는 것일까?

나 혼자는 빨리 졸업하고 떠나면 그만일지 모르나 기숙사에서 모든 지방학생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상 앞으로 나와 같은 처지의 학생들이 매일을 눈치와 짜증속에 소중한 대학시절을 일그러뜨려야 할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한숨이 나올 따름이다.

아무리 당구장차가 신나게 학교안팎을 달려도 구겨지는 학생들의 자존심을 막지도 회복하지도 못한다.

김선경(서학·영어 3)

교수님도 대동제에 참여하시길

전 외대인이 어우러지는 한마당, 5월 축제인 대동제. 이런 대동제 기간에 본인은 물론이고, 신입생들에게 의아심을 일으키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교수님들의 수업강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1일(화)에 열릴 '청소년 음악회'는 수업을 모두 뺀다고 한다. 물론 이 청소년 음악회는 우리 학교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물게 하는 행사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외대에 대한 대외이미지도 높이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업을 뺐다면 그건 이해할 만한 일이다. 작년 3월경 불가리아 대통령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을 시에도 관련과가 초청강연에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취지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녁에 치를 행사인데 굳이 수업을 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4일간의 전 일정을 통해서 외대인이 함께 어우러지고 신나는 한마당인 대동제 기간에는 왜 수업을 강행해야만 할까? 물론 교수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4일간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운 일이겠지만 교수님들도 대동제 의의를 잘 아시리라고 본다. 사실 대동제기간에는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가 많다. 수업을 하고, 안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대동제기간만큼은 전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대동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그리고 참여하도록 배려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동욱(동양·베트남어 2)

후생과직원들 친절해야

대학이란 곳에서 생활한지도 어느덧 두달하고도 보름이 지났다. 그동안 여러 번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있는데, 문구점이나 학생식당, 다방의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했던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비해 깡통이나 도서관 지하 매점에서는 그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다.

또한 식당의 경우 질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방법으로 외자도입을 거론하고 싶다.

학생식당을 얘기해보자. 가까운 경희대는 차치하고 이화여대의 경우 음식의 종류나 질면에서, 그리고 직원들의 학생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학교와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 차이는 무엇에 기인하는 것일까? 이화여대 식당은 신세계에서 운영한다고 한다. 전문화된 곳에서 운영하는 만큼 질적으로 우수하다. 특히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도 후생과에 소속된 직원보다 투철하다. 작은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생활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이기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직원들의 불친절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원의 주체는 학생, 교수, 직원이다. 이중 마찰이 가장 잦은 곳이 학생과 직원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오래도록 고쳐지지 않은 일이라면, 학교측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외자도입은 부분적인 해결 방안일 뿐이다. 학원의 주체로서의 대우를 학생들이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한다.

정준호(동양·아랍어 1)

명수당(明水堂) 학내 금연 절실하다

강의실 계단을 올라갈때면 아름다운 용인캠퍼스 정경이 들어온다. 그러나 코끝으로 흘러나오는 담배냄새가 출입문, 계단을 올라갈때마다 풍겨나오는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 그때마다 내 옆에 같이 걷던 동료교수는 숨이 막히는게 늙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하곤 한다.

강의실에 들어설 때 계단 위 아래를 아무 생각없이 거닐며 담배를 물고 있는 학생들, 복도 끝 화장실 주변에 서있는 흡연자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담배 연기와 화장실 냄새가 공기중 혼합이 되어 바람에 날리기도 하며 건물 전체에 떠다닌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추워서 창문을 닫아야 하는 날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하다. 이런 일은 이문동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인문과학관 강의실에서 수업을 맡고 있다. 그런데 휴식시간인데도 많은 학생들은 교실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냄새가 나는 복도로 가서 자신들의 머리와 옷을 더럽히고 폐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서이다. 그들은 간접흡연이 스트레스, 기침, 감기를 일으키며 심폐기능의 손상을 가져와 심지어 조기 죽음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실제로 담배연기속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보는 것이 어렵고 또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힘들다고 말한다. 사실 내가 강의하는 작문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복도에서 담배피는 것이 나쁘다고 적었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담배 피우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대중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을까? 그들이 진짜로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기나 하는 걸까?

담배를 피우는 학생도 이렇게 시인한다. "처음 내가 복도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나는 죄스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았기에 계속 그럴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것은 먼 거리가 아니다. 흡연자들이 몇분동안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고 교실로 올라올수는 없을까? 이건 또한 좋은 운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료교수는 이제 심장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아 회복하고 있다. 흡연은 그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한 노교수는 복도와 교수 휴게실 등의 담배연기 때문에 심장과 폐에 충격이 온다며 불평하기도 한다. 그들이 만약 입원하게 된다면 누가 그 가족들을 돌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첫단계는 어떻게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다. 두번째는 우리 주변 동료들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다. 세번째는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학이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간접 흡연에 의한 해를 없애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셀릭슨(F.J.Seligson)
〈영어교육과 교수〉

독자사진

엥글스

공직설명회개최

총무처 시행 상반기 공직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공직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1996. 5. 30.(목) 14:00
2. 장 소: 대학원 6210호
3. 참석자: ○총무처 인사국장
   담당과장
   ○대학동문 공무원

1996. 5. 14.

학생취업정보센터 소장

교 양 특 강

◉주 제: 문화의 상징으로서의 음식
　독일 쾰른지역 맥주, 쾰쉬를 중심으로

◉강 사: 조관연 박사(교양부강사)

◉일 시: 1996. 5. 27.(월)
　15:30~17:20

◉장 소: 교양관 2303호실

교양부 주임교수

B형 간염 및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실시안내

일 시: 1996년 5월 21일(화)
　10:00~17:00

대 상: 1. B형간염예방접종
　(1) '96년 5월 9일 실시한 간염검사 결과 항체가 없는 학생 및 교직원
　(2)기존 접종후 5년이 경과한 학생 및 교직원(추가접종)
　2.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전년도 예방접종자는 1회접종

접종료: B형 간염예방: 1회 5,500원(3회접종)
　유행성 출혈열: 1회 7,700원(2회접종)

장 소: 용인캠퍼스 보건실

용인캠퍼스 학생처장

입 찰 공 고

1. 입찰사항
　1)구내식당운영: 복지관 1층 학생식당, 2층 교직원식당, 기숙사식당
　2)구내매장운영: 구내매점, 안경점, 이발소, 미용실, 복사실, 화장지자판기운영, 사진관, 여행사, 신발·가방·운동용품점, 전자제품점, 세탁편의점, 의류·내의·꽃집, 기획사·기념품집

2. 입찰일시 및 장소: 1996년 6월 11일(화) 11:00
　본 캠퍼스 생활협동조합 회의실
　(공대 103호)

3.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

4. 낙찰방법: 구비서류, 운영계획서 및
　복지기금 납부액을 검토하여 결정함.

5. 입찰보증금: 복지기금 납부예정액의 1/10이상
　(입찰당일 본 조합 총무부 입금)

6. 입찰참가자격
　1)구내식당 운영자:
　(1)지방소재 재학생 정원이 5천명 이상인 남녀공학 종합대학교에서 계속해서 5년이상 구내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
　(2)대학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급식 위탁운영전문회사(CATERING 사업)
　2)임대매장 운영자: 해당매장을 대학 또는 지역사회에서 운영한 경험이 있고,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7. 입찰참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일
　1996년 5월 27일~6월 3일(10:00~16:00)

8. 입찰참가 신청서배부 및 접수 장소: 생협선임이사실
　(공대 217호, 전화번호 0335-30-4397)

9. 입찰자 유의사항
　1)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조합에 귀속한다.
　2)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3)단독입찰의 경우 조합에서 내정한 조건과 입찰자의 응찰조건을 비교하여 낙찰여부를 결정하며, 조합과 입찰자가 조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유찰한다.
　4)입찰자가 다수일 경우 1차 서류심사하여 6월 10일에 입찰자격 여부를 통보하며, 본 입찰에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찰자격은 입찰자가 확인 요망)

10. 계약체결 일시
　1996년 6월 12일(수) 11:00 생협선임이사실

11. 구내식당 및 매장위치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 89번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복지관 외

12. 학생 및 교직원 수
　학생 6,500명, 교직원 500명(강사 포함)

13. 기타 상세한 입찰사항에 대하여는 생활협동조합 선임이사실(0335-30-4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6년 5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심 층 보 도

□ 찢겨진 대자보, 무엇이 문제인가

"학생처장 책임지고 공개사과 해야"

지난 17일(금) 서울캠퍼스 학생처를 들어서려던 학생들은 주춤할 수 밖에 없었다. '총학생회의 학생처장실 집기방출로 인해 학생처 업무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처 직원들의 대자보 철거사건으로 불거진 대학당국과 학생들의 마찰은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목) 9시 30분경 학생처장을 비롯한 학생처 직원들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대동제 기간 마련한 거리선전물 중 '충격고백 외대실화'라는 제목의 '재단의 거리' 대자보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훼손했다.

찢겨진 대자보는 재단이사진 구성, 동원재단의 교육용 자산현황 등 재단과 관련한 자료가 삽화와 함께 꾸며져 있던 것으로 부착할 때부터 대학당국과의 마찰이 야기됐었다. 이에 양측은 총장과 총학생회장의 면담을 주선하고 '책임있는 당사자와의 대화로써 등록금 문제를 조절하고 일부의 그림 등 3개의 대자보는 철거한다'라는 내용에 합의를 봤다.

그러나 몇시간 채 되지 않아 대자보는 갈기갈기 찢겨진 채로 발견됐다. 대자보 훼손 당시 교문진입로로 모여든 300여명의 학생들은 홍순남 학생처장(이랍어과 교수) 및 학생처직원 7명을 향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답은 대자보를 찢는 행위는 대화로써 모든 문제를 풀자는 대학당국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라며 공개사과와 원상복구를 외치며 자정이 넘도록 자리를 지켰다.

공개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학생처장은 "대자보 훼손에 대한 부분은 사과할수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인신공격인 대자보의 내용은 93년도 총학생회가 요구하던 내용과 달라진게 없다"라며 "학교정책적 지도의 일환으로 내 개인이 판단해 결정한 일이다"라고 대자보를 찢게 된 배경에 대해 말했다. 또한 15일(수) '대자보의 내용들이 명확한 근거에 의할 것'을 요구하며 총학생회에게 경고의 글을 보냈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는 "대자보 훼손은 명백한 학생처장의 잘못이다"라며 학생처가 보낸 경고의 글을 반박하는 '재단과 학교당국의 권한을 벗어나는 어떤 행위도 용서할 수 없다'는 글을 학생처에 전달하고 16일(목) 학생처장실 집기를 들어냈다. 또한 △대자보 훼손에 대한 공개사과 △직권남용에 의한 퇴진 △재단의 자산내역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학생처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행동에서 기인한 것만은 아니다. 대다수 학생들의 도서관, 식당, 공간문제와 무능한 재단에 대한 불신 등 포화상태에 다다른 불만들이 터져나온 것이다. 외대발전 그 멀고도 험한 길은 진정 외대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이다.

김재경 기자

쓰레기 잔치 서울캠퍼스에서 13일(월)부터 4일간에 걸쳐 치러진 대동제 후에 널려진 쓰레기더미 모습이다. 홍겹게 치러진 행사 뒤에 남겨진 쓰레기 처리를 미루는 학생들의 모습은 행사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한승주 기자

용인 100대 요구안 결정

5월을 기점으로 교육재정확보투쟁이 대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금) 용인캠퍼스 7000여 학생 100대 요구안이 최종 결정됐다.

이에 총학생회는 앞으로 1만 3천 4대 공동요구안과 함께 100대 요구안을 관철사키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음은 각 건물을 중심으로 한 요구안이다.

어문관	동구어대 단대분리
	담배자판기 설치
	약국이나 보건소 설치
	주차공간 정리
	지하과방에 환풍기 설치
	루마니어과 학회방 확장
	루마니어과 교수 충원
인문경상대	지역학 도입(함가리)
	여학생 휴게실 2층으로 이전
	휴게실을 휴게실답게
	세미나실 시설 확보
	동아리방 확보
	측면 휴식공간 개발
자연대	각과방에 전화기 설치
	실험실습비 확충
	등록금 차등인상내역 공개(기성회비 차등인상 반대)
	신강의동 강의실, 천장에 보조타인 시공(방음효과)
	승차장 앞 공간정리
	자연대앞 건축자재 정리
	환경통계학과 세미나실 확보
	주차공간 확보
	강의실 선풍기 설치와 창문의 1차선팅
	단대동아리방 확보

공대	신강의동 명칭변경(공대건물)
	신강의동 중앙상징물 건립
	신강의동 조경 완비 (중앙의 빈 공간)
	신강의동 24시간 개방
	사워실, LAB실 설치 운영
	등록금 차등인상내역 공개 (기성회비 차등인상 반대)
	컴퓨터 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 확보
학생회관	오토바이 자전거 보관대 설치
	분과별 알림판 보수 증설
	사회봉사활동 지원금 확보
	학생회관 겨울난방 보장
	각종 시설 보수기간 단축
	학생회관옆 야외소극장 설치
	동아리방 3개 확보
	복도끝 재떨이, 의자 설치
	동아리 기본금 차등지급 철폐
	동아리방 방충망 및 보조키 설치
	학생회관내 컴퓨터실 설치(동연실)
	후생복지관 전시실 3층 이전
	동아리 학술활동을 위한 분과도서관 확보
	LAB시설 설치 운영
	체육기자재 장고 확보

구내 이발관 이용료 비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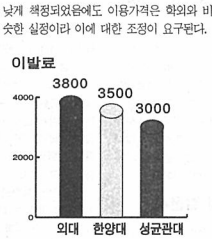
타대학 수준으로 조정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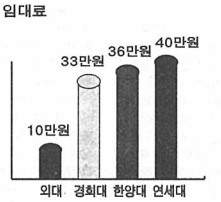
서울캠퍼스 시창각교육원 지하에 위치한 구내 이발관의 이발비는 3,800원으로 타대학보다 많게는 800원 적게는 300원이 비싸 학생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경희대, 한양대, 숭실대 등 대부분의 사립대학의 구내 이발관 이용료가 3,000원정도이고 대학당국에 내는 임대료가 월 10만원으로 경희대 33만원, 한양대 36만원, 연세대 40만원 등 1/3 수준에 머무르는 임대료를 볼 때 오히려 비싼 이발료에 대한 의혹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후생과 홍종률 과장은 "임대료를 올리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라며 "이발료를 올린 대신 98년 2월 까지 3,800원으로 묶어 놓은 것이다"라고 대학당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임대료는 낮고 이발료는 높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발소 주인 박돈규씨는 "이발소의 위치가 너무 외져 있고, 시설면에서도 다른 대학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라며 "무스와 스프레이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 줄 것이다"라고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용원(법·법학 4)군은 "평수는 비슷한데 자리잡고 있는 위치로 인해 300원을 더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무스와 스프레이는 타대학 이발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발관 주인의 말을 반박했다.

이발소 뿐만 아니라 구내에 자리잡고 있는 외부 임대업자에 대한 임대료가 본교는 낮게 책정되었음에도 이용가격은 학외와 비슷한 실정이라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된다.





사 령

임

수습기자

김영준(사회과학계열 1)
김정희(서양·불어 1)
김학영(인문·사학반 1)
박노라(인문·사학반 1)
박윤정(사회과학계열 1)
서윤경(서양·불어 1)
이동훈(상경계열 1)
염혜진(체코어 1)
홍연화(서학·독일어 1)

이상 9명 5월1일(수)자

교수협의회 진단

학내 문제에 실질적 영향력 부족

본교 교수협의회는 지난 87년 10월에 교수들의 의사를 집약해 '본교 운영전반에 반영시켜 대학을 민주화 하고 학문과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 하자'라는 취지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발족했다.

현재 280여명의 교수가 가입해 있는 교수협의회의 전반적 기능은 △총장임명에 관한 동의 △학칙개정, 인사행정 등 학교운영방침의 성취 △학교예산 성취 및 의견개진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1년에 두차례씩 열리는 교협 총회는 학교운영의 전반적 논의보다는 교수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교협의 실질적 활동을 하고 있는 평의원회는 △학교예결산 심의 △학교 장단기 발전계획 심리 △학생의 권익과 교수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사항 심의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평의원회는 교내의 여러 문제에 대한 교수협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협은 지금껏 학내 권한들에 대한 논의와 총장임명에 대한 동의 등의 활동을 보여왔다. 이는 교협이 대학당국의 행정을 견제하면서 학내문제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줬다는 측면과 늘 논의의 수준에만 그쳐 사실상 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교협은 현재까지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외대의 한 구성체로써 외대발전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오은진 기자

□ 교수협의회 회장 남성우 교수를 만나

"등록금 의존률 77.5%, 문제제기 가능하다"

- 교협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의 생각은

= 책임이 무겁다

- 요즘 대학에서 일고 있는 총장직선제 파문에 대한 생각은

= 외대는 현재 직선으로 총장을 뽑고 있으며 한번 밖에 시행되지 않았기에 한 두번 더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총장직선제는 총장의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된다.

- 지난해 학장직선제 논의가 대두된 배경과 결과는

= 직선제가 아닌 학장임명동의안이었다. 학장임명동의안은 부결됐지만 현재 대학당국에서 계속 검토중이다. 만약 임명동의안이 의결된다면 학장이 학장답게 설수 있을 것이다.

- 등록금 예결산심의에 참가하는데 현재의 등록금 고지액 '180여만원'과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에 대한 생각은

= 그만큼 돈이 있어야 학교가 운영되는 것 같다. 그러나 본교 등록금 의존률이 77.5%나 되므로 학생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재단에 대한 생각은

= 학생들이 재단을 비난하는 것은 같은 식구들끼리 칩앨는 격이다.

S I N C E 1 9 6 1

개교 34주년을 축하합니다.

35년 전통의 시사영어학원은 최고만을 추구합니다.

영어회화-실패는 결코 없습니다.

회화를 배우기 위해 미국연수는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TESOL을 근거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모아 전과정을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세계화의 도우미 ®
시사영어학원
종로2가 종로서적 뒤 TEL:734-2442

미인회화
C.E.L.P.
Communicative English Language Program

- 전원 TESOL 전공한 Native Speaker
- 15Max per class
- A.M. - 7:00,8:00,9:30,10:30,11:30,12:30
  P.M. - 5:00,6:00,7:00,8:00

구 분		단계	시간	기간
Beginning	Threshold	L1	60Min	1M
	Beginning	L2,L3	60Min	1M
Intermediate	Low - IM	L4,L5	60Min	1M
	Intermediate	L6,L7	60Min	1M
	High - IM	L8,L9	2hrs	1M
Advanced		L10	2hrs	2M

PLACEMENT TEST
- Date : 25~30th
- Time : 2:00, 6:30 P.M.
- Test 비용은 무료.

● TOEIC 900 ● TOEFL ● LISTENING ● TIME ● AFKN ● VOCAB ● WRITING ● GRAMMAR ● READING ● 영어순해 ● 시네마영어 ● 미국인회화(CELP) ● 한인회화(S.B.S) ● TOEFL 600 ● GMAT ● GRE ● 대학원 종합반 ● 통역대학원반 ● 일본어 회화 ● 일본어 문법·독해 ● 일본어 능력시험반 ● 일본어 통역대학원반 ● 주말집중반

자립경제 목표로 사람중심의 경제발전

경공업과 농업 동시 발전·개인의 의식이 발전의 원동력

〈글 싣는 순서〉

1. 북한의 경제구조
2.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3. 남북경협의 현황
4. 통일을 준비하는 경협의 상

남한국민의 대부분은 북한의 경제를 자본주의의 잣대로 재단한다. 그러나 북한의 남한사회와는 전혀 다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북한을 이해하는 객관적인 눈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남과북은 생존의 동반자

북한 경제를 이해하려면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이며 통일의 목적이 뭔지를 되새겨봐야 한다. 최근 2년간 북한 수재로 인한 쌀 지원, 경수로 지원 문제를 놓고 말이 많았다. 또 정책도 일관성이 없었으며 국민적 합의도 이뤄진 적이 없다. 지난 80년대까지는 정부만이 통일에 관련된 논의를 독점해 왔다. 정부는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통일문제를 악용해왔다. 그러나 이제 통일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이며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하게 됐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올바른 통일인식이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북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장기적이며 통일 뒤까지 바라보며 민족의 이해를 따지는 소위 '통일경제적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은 '통일의 목적'이다.

지금부터 1백 3년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뒤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영전략상 실패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동북아 주도국들에 의해 소외되면서 힘악했던 1백년의 근·현대사가 시작됐다.

최근에 와서 우리는 그런대로 잘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려고도 한다. 그러나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중국이 세계 최대경제국이 될 것이며 그간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러시아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동북아의 주도권 싸움에 낙오자가 될지도 모른다. 결국 통일은 21세기 민족이 사는 유일한 전략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형·동생의 관계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남·북한은 '생존의 동반자'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지원문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북한이해, 객관적 기준 필요

또 한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사회주의 체계가 쉽게 붕괴되지 않을 점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정권이 설령 만에 하나 붕괴되더라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광양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남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엄연한 두나라로 인정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를 바라볼 때 남한국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체제의 잣대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남북한의 경제력을 비교할 때 GNP를 대비하는 것이다. GNP가 본래 문제가 많은 지표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사회주의 경제력은 절대 GNP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실례로 헝가리는 우리 GNP의 1/3 수준이지만 사회복지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다는 사실을 봐도 알 수 있다.

GNP는 '1년간 생산한 재화'일 뿐 교육의 유산이나 기존 재산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간에도 GNP로 국력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북한의 △정무원 경제 △군수산업 경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경제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따질 때는 GNP보다는 오히려 위기관리 능력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통일경제적 시각

위기관리 능력으로 볼 때는 우리는 북한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자본주의 바다에 떠 있는 외로운 배'이면서도 미국, 일본을 상대로 실질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우리식 잣대로 재단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의 일반적 특성(전체의 70%)이나 민족적 특성(전체의 20% 가량)을 무시한 채 우리의 잣대로만 판단한다. 그러다보니 김정일의 권력 승계 추측이 수십차례 있었으나 모두 빗나가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객관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게다가 통일 환경 조성에 필요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지 않는 '통일경제적 시각'도 갖춰야 한다. 통일이 되면 남한 국민이 많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이제는 거둬야 할 때이다. 아무런 근거없는 통일비용 예측이 난무하나 고려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통일뒤 중·장기적 비전없이는 어떤 통일비용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멀지않아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인프라 분야의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될 것이다.

북한경제의 발전사

1945년 이후 제 3차 7개년 계획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4단계의 9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을 실시해오고 있다.

북한의 경제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특징을 지어 구분해 본다면 70년대 중반까지의 성공기, 80년대 초중반의 성장의 둔화기, 80년대 후반 이후의 침체기로 나눠 볼 수 있다.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추진된 제 3차 7개년 계획의 경우 그 계획기간의 중반인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구 사회주의권의 체제개혁과 소연방의 붕괴로 인해 북한 경제의 대외부문이 붕괴됨으로써 최악의 경제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간 북한의 경제건설은 정부 및 노동당의 통제하에 진행돼 왔다.

해방직후의 급격한 경제개혁 이후 북한은 농업 및 상공업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58년에는 두 부문 모두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완성시키는 추진력을 보여왔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경제건설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추구해 온 것이다. 민족적 자립경제를 형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이라는 원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경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온 자본주의적 발전 방향과 다를 뿐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길'과도 다른 북한식의 경제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북한식 경제발전 전략의 추진 방향은 첫째로, 중공업의 우선성장을 통해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보다 많은 생산수단을 공급함으로써 이들 부문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으로 국내시장을 확대하고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했다. 둘째로는 생산수단의 생산과 소비재의 생산을 연결하는 물질적 조건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른바 세가지 차이인 도시와 농촌, 농민과 노동자,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구분을 해소하고자 했다.

자립적 민족경제

이와 같이 북한의 경제건설은 민족 내부의 주체적 역량에 의거한 공업화의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중공업·경공업·농업부문이 상호 연관성을 갖는 종합적인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 북한은 이와 같은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우위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본질적인 우위성의 근거로는 착취로부터 해방된 근로자가 조국과 국민, 사회와 집단, 그리고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각적인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로부터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적인 특징인 대인활동 우선의 원칙이 강조된다. 즉 사회주의 공업경영은 자본주의와는 달리 개인의 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인활동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 자각과 사상·의식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앙양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사업에 그들을 자각적으로 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1972년 신헌법 제정 이후로는 주체사상이 자력갱생론과 밀접히 연관을 가지면서 경제에서의 자립이라는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있어서의 발전 과정은 일반적이고도 일률적인 과정이 아니며 그것은 각국의 객관적인 정세와 주체의 역량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별국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 및 방법 그리고 그 형태는 각국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법칙만 가지고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길은 다양하다는 입장에서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경제정책의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상 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지표로 보는 북한경제

표-1) 국민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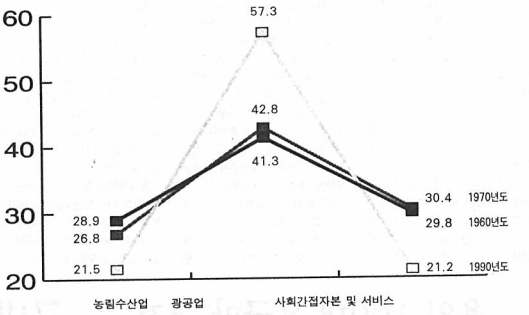


표-2) 북한의 직업별 성별 인구구성

구 분	전 체	남 자	여 자
국영기업소 노동자	7,135(57.0)	3,134	4,001
공 무 원	2,103(16.8)	876	1,224
농 장 원	3,167(25.3)	1,312	1,855
협동기업소 노동자	112(0.9)	42	70
합 계	12,517(100)	5,367	7,150

→ 북한은 여성의 취업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률도 매우 높다.

표-3) 북한의 산업구조

	농업	공업	건설	수송 및 통신	상업 및 기타
1988	21.2	46.5	16~17	4.5~5	11~12
1989	21.2	46.0	16~17	4.5~5	11~12
1990	22.3	45.3	16~17	4.5~5	11~12

노동자와 협동기업소가 전체인구 60%

7개년 연장개발 정책으로 공업비중 계속 증가

북한의 산업구조에 관한 통일원의 추정에 의하면 1990년도 북한 국민 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율은 농림어업 26.8%, 광공업 56.0%, 서비스업 17.2%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설업을 광공업부문에서 떼어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으로 분리할 그 구성비율은 표 1과 같다.

북한의 산업부문별 고용구조(표 2 참조)를 살펴보면 농장원이 총 취업자의 25.3%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북한의 농업인구의 비율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영기업소의 노동자와 협동기업소의 노동자의 비중이 전체인구의 60%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업화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중공업 우선의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공업부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이 완료된 1956년에 이미 농업 26.1%, 공업 40.1%, 기타 33.8%로서 전체 산업에서 공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이후에도 공업부문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게 된다.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실현하는 기업-現代

"세계최고의 기술인재로 커주십시오"

●신동원(메모리 연구소 주임연구원: 256M S-DRAM 연구)

첫번째가 된다는 것, 세계1위에 오른다는 것!
생각만해도 정말 가슴 벅찬 일이죠. 내가 만든 기술이
세계인의 삶의 질을 높였다면 그 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미래를 위해 자기 분야에서 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세계1등 인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미래목표입니다.

現代는 매년 4월 22일을 '現代기술의 날'로 선포하고,
'現代기술상'을 제정하였으며, 기술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R&D 인재육성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위해-
現代는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現代

인권보고서

1. 총괄
2. 대만
3. 태국
4. 한국

자본가와 강대국의 국제적 인권탄압

경제성장·정권유지 위해 국가보안법 이용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른 탈냉전시대가 등장하면서 최근 국가안보와 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동서 모두 체제수호 즉 국가안보를 구실로 한 인권의 제약과 탄압이 난무하였다. 그러나 이를 정당화했던 동서의 냉전구조가 붕괴되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고 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한 인권침해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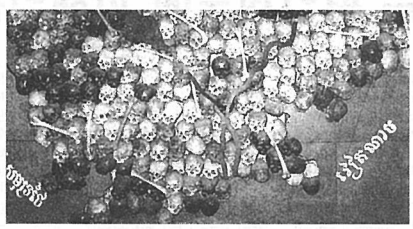
국가보안법을 보통 영어로 National Security Law라고 표현한다. 이 단어 속에는 국가, 보통은 민족국가 nation-state와 안정보장(안보) security의 두 개념이 들어있다. 즉 말 그대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이다. 순수한 의미에서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공공질서 그리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은 거의 모든 나라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인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국보법이 정부 또는 정권을 유지하는 법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실질적인 헌법'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의 국가보안법은 정치는 물론 학문, 예술, 교육, 언론과 출판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보안법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태지역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40-50년대 국가보안법은 아시아 국가를 식민통치한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가 독립 후 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한국의 경우는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현 국가보안법의 뿌리이다.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둘째, 60-70년대에는 권위주의 정권이나 군사통치에 반대하는 급진적인 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중국 등)

셋째, 80년대 접어들어 공산주의 위협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외국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정책에 반대하는 원주민, 지식인, 야당 등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필리핀 등)



이른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유지가 아니라 정권이나 세력의 유지를 위해 쓰이고 있다. 사진은 '킬링필드' 대학살때 살상당한 민간인들의 진짜 해골로 만든 캄보디아 지도이다. 시진 한겨레 21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시대의 변천과 함께 특성이 달라져왔지만 정권유지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90년대에는 아태지역 전역에 '개발독재'에 의한 경제성장 붐이 불면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발독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경우처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 인권을 제약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 달리 표현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자본과 기술이 안정적으로 유입되어야 하고 이를 저해하는 모든 집단행동, 즉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는 제약되어야 한다는 반인권적 논리가 아태지역에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경제개방화와 국제화로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하는 것을 정치적 통제의 강화를 통하여 보전하려는 시도가 국가보안법의 강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은 반체제 즉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여 탄압을 받는다. 관료와 기업가 그리고 다국적기업이 이러한 경제성장의 주 수혜자이고 경제성장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일반 민중이 철저히 배제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어진다.

일반적으로 탈냉전의 시대분위기와 점차적 민주화의 진전, 그리고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정치적인 영역보다는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남북분단 구조로 인하여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모두가 여전히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문민정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이 계속 기승을 부리는 것은 국보법의 본질이 반북 이데올로기와 정권의 유지에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국가보안법에 인한 인권침해는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다. 지금의 반인권적이고 반환경적인 개발이데올로기가 아태지역 전역에 계속해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저항은 계속될 것이고, 이를 탄압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이 아닌 자본을 중심으로, 그리고 권위주의 국가에 의해 추진되는 아태지역 내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부쟁은 한 국가 내에 국한될 수 없으며 국경을 넘어서는 국제연대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즉 국가가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던져주는 안보가 아니라 시민사회 즉 民 (People)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들어내는 안보체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 성 훈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간사〉

생활 속에서

지하철은 공해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지하철역에 붙은 2장의 벽보를 보았을 것이다.

한장은 서울시내 지하철역 오염도고 다른 하나는 '지하철을 타실때는 방독면을 쓰십시오'라는 말로 시작하는 벽보이다.

이는 지하철역의 공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리기 이해 서울지하철노조가 부착한 것이다.

최근 서울지하철노조와 환경운동연합이 지하철역의 공기오염,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이산화질소(NO_2) 오염도를 공동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지하철안에 이산화질소가 가득하다고 한다.

이산화질소는 인체에 매우 해로워서 이를 마시게 되면 두통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해지게 된다. 또 각종 폐질환을 일으켜 심한 경우에는 폐암까지 일으킨다고 한다. 간접적으로는 비가 내리면, 화학반응을 하여 산성비 및 스모그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산화질소가 가장 많은 역은 3호선 경복궁역으로 오염수치가 141.66ppb나 되었다.

이는 환경부 기준치(1년평균) 54ppb보다 두배가 훨씬 넘는 수치인 것이다.

신설동역은 102.29ppb, 2호선의 낙성대역은 114.46ppb로 각각 호선에서 최고를 차지(?)하였다.

호선별로 보면 1호선의 지하철은 대부분 지상에 있어서 지하에 있는 서울역, 시청역, 종각역, 종로3가역, 동대문역, 신설동역, 제기역을 제외하면 거의 이산화질소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았다. 외대앞역도 다행히 그런 역중의 하나이다.

2호선은 구의역(13.26ppb)을 제외하면 1호선보다 약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호선에는 최고치가 40ppb대에 있는 역이 2곳(대청역, 일원역)있는데 반면 4호선에는 한 곳도 없다.

결국 지하철의 공기는 지상보다 최고 4.41배 오염되어 있는 것이다(환경부와 서울시 조사 결과). 또한 각종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도 환경부의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한다.

지하철은 그야말로 서민의 발로 서울시민의 대부분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하철역을 포함한 지하공간중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공기정화 시설등을 갖춘 곳은 전체의 17.8%(95년도 지하공간 실태조사, 환경부)밖에 없다고 한다.

시민의 발이며 중요한 교통수단인 지하철, 그 환경을 이대로 두면 말그대로 공해철인 지하철을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서민을 생각하는 환경정책이 가까운 곳에서 단계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허윤숙 기자

민언협, 17기 언론학교 개최

언론역사·멀티미디어 등 다룰 예정

날짜	시간	강의주제	강 사
6/18(화)	오 7:00	입학식	김태진(본회 의장)
	후 8:00	한국언론의 역사 및 언론관	이효성(성균관대 교수)
6/20(목)	7:00	뉴미디어시대 신문제작론	차성진(한겨레신문 기자)
6/25(화)	7:00	뉴미디어시대 방송제작론	이상요(KBS 프로듀서)
6/27(목)	7:00	신문 바로읽기	백병규(「미디어오늘」편집부장)
7/2(화)	7:00	방송 바로보기	최영묵(본회 정책위원, 한양대 강사)
7/4(목)	7:00	영상시대, 한국방송 구조의 전망	전용준(본회정책위원, 방송개발원 연구원)
7/6(목)	2:30	한국신문을 진단한다-증면, 조간화, CTS등	주동황(광운대 교수)
	4:00	〈특강〉정치와 언론-정치저널리즘	강준만(전북대 교수)
7/7(일)	수련회	민주언론운동협의회 10년史	정상모(한겨레신문 편집위원)
7/10(수)	7:00	〈특강〉언론과 페미니즘	오숙희(여성학자, 방송인)
7/11(목)	7:00	한국영화의 현실과 전망	정성일(영화평론가)
7/16(화)	7:00	광고의 세계-어떻게 만들어지나	김인규(엘지에드 부장)
	8:30	대중문화 그리고 광고읽기	박일환(전서강대커뮤니케이션센타연구원)
7/18(목)	7:00	멀티미디어의 실체와 미래	정근원(미래영상연구소 소장, 서강대강사)
7/23(화)	7:00	만화의 이해	이희재(만화가)
7/25(목)	7:00	뉴미디어의 활용과 참여	김명준(「노동자뉴스제작단」대표)
	2:00	방송현장에서 보는 언론운동	손석희(MBC 아나운서)
7/27(토)	3:00	시민사회와 언론운동의 과제	최민희(본회 사무국장)
	4:00	졸업식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는 제17기 언론학교를 시작한다.

이번 언론학교는 "언론을 보면 세상이 바뀝니다"라는 모토아래 6월18일(화)부터 7월27일(토)가지 민주언론운동협회 교육관에서 하게 된다.

언론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회비는 7만원이다. (말지 정기구독자는 6만원), 접수는 6월17일(월)까지 받으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문의는 사무국 전화 326-1251-4로 하면 된다.

학술단신

'인터넷의 바다로' 강좌개최

세계경영대학원 제 30대 원우회는 '인터넷의 바다로' 라는 제목으로 29일(수) 오후 8시부터 대학원 건물 104호에서 인터넷 강좌를 개최한다.

이 강좌에서는 인터넷 기초와 정보검색방법, 최근 인터넷 동향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다.

강사는 나우콤에서 초빙한다고 한다.

외국어교육연구소 학술발표회

본교 외국어교육연구소에서는 제 1회 외국어교육 학술발표대회를 오는 22일(수) 오후 4시에 본교 서울캠퍼스 시청각건물 203호에서 개최한다.

이 발표대회에서는 이인영 (본교 일본어과) 교수가 한·일 양국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또 이문수 (본교 루마니아어과) 교수도 루마니아어의 특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외국어교육연구소는 3년만에 다시 생긴 연구소로서 부활한 이후로 처음 갖게 되는 학술 발표대회이다.

A.L.A 영어듣기평가 개최

본교 A.L.A에서는 21일(화) 오후5시부터 본교 서울캠퍼스 시청각실 403호에서 제 32회 듣기 평가를 한다.

접수는 학생회관 4층 A.L.A 동아리 방에서 받고 당일 접수도 가능하며 참가비는 2000원이다.

한국전산망 보안기술 워크샵 열어

한국통신정보 보호학회와 한국정보처리학회는 '제 2회 한국전산망 보안기술 워크샵'을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서울 역삼동)에서 28일(화)부터 29일(수)까지 개최한다.

미국학 목요 공개 강연

시민운동과 여성학 강좌

미국학 중 시민운동과 여성에 관한 공개강연이 오는 23일(목)과 30일(목) 오후 6시에 미국 공보원 자료정보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 공개강연은 제 19회 미국학 목요공개강연 중의 하나로 23일에 있을 강연은 미국시민운동의 기수로서 활동했으며 리콜제도를 처음 창안하고 실행한 변호사 랄프 레이더씨가 연제를 하고 본교 신문수교수가 사회를 본다. 30일에 있을 강연은 베티 프리단씨가 연제할 예정이다.

베티 프리단씨는 여성해방운동가로서 전후 여성의 좌절, 불만을 해명하고 여성의 주체적 의식을 고취하는데 앞장서왔다고 한다.

소금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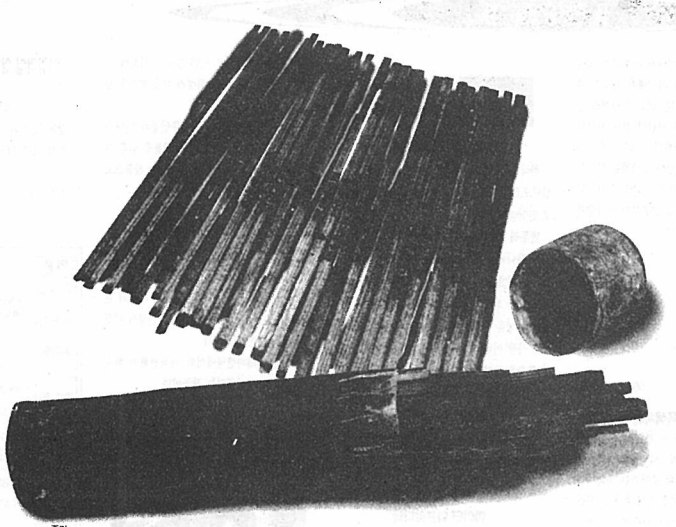
신재벌정책

신재벌정책은 크게 경제력집중억제책과 재벌전횡억제책으로 나뉜다. 경제력집중억제책으로는 재벌계열사간 채무 보증한도 축소·폐지, 변칙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금 강화 등이 있고 재벌전횡억제책으로는 재벌가와 계열사간의 은밀하고 수상한 내부거래 공시의무 부과와 기업 집단연결 재무제표 작성의무 부과 등의 경영투명성 확보책 등이 있다.

그러나 일면 획기적인 듯 보이는 이 정책은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정책은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한다기 보다는 재벌총수의 경영횡포와 비리를 억제하고 있는 면이 강하다. 즉 신재벌정책은 재벌총수의 경영비리횡포가 바로잡히기만 하면 경제력 집중의 문제, 즉 재벌의 존재 자체나 규모는 별 문제가 안되게 허용해주는 이중성을 지니는 것이다.

경제력 집중이 경제효율과 분배정의는 물론 민주정치의 이상과도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신재벌정책은 근본적인 재벌의 문제를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POSCO 메시지면학편



• 죽간
댓가지에 글귀를 적어 가죽끈으로 꿰어 쓰기도 하고
통에 넣었다가 빼보기도 함.
우리나라의 옛책은 제본시 다섯바늘을 꿰매는 것이특징이다.

'韋編三絶'

위편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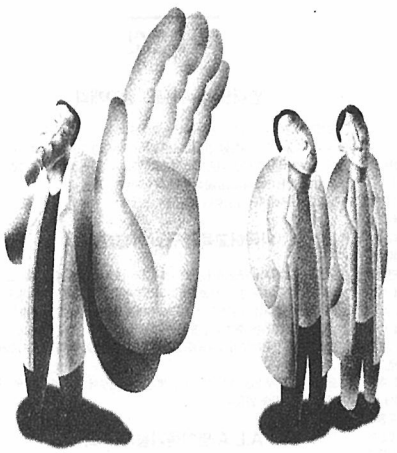
옛날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대나무를 쪼개서 만든 죽간(竹簡)이란 것에 문자를 적어두었습니다.
책(冊)이란 한자도 바로 이 죽간의 한쪽에 구멍을 뚫어 끈을 꿴 것을 형상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韋編三絶(위편삼절)'은 이렇게 가죽으로 엮은 끈이 세번 끊어진다는 뜻으로, 학문에 성실했던 옛 성인들의 정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장 겸손한 탐구자만이 가장 위대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배움 앞에 늘 성실한 '위편삼절'의 정신- 그 정신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

재학생 권리지키기와 편입생 권리찾기

대책없는 편입제도에 피해입는 학생들



재학생들과 편입생들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커지고 있다.
모두가 외대인이라는 인식과 무엇보다 도 대학당국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거창한(?) 취지로 마련된 5·31 교육개혁안으로 대학 정원 산출 기준이 자율화된 것, 즉 휴학생으로 생기는 여석의 관단을 대학이 내릴 수 있게 됨에 따라 본교도 올 한해만 400명이상의 편입생이 들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편입학 자율화가 대책없는 돈벌이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가깝게는 교내로 이어져 재학생들과 편입생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까지 번져가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학교측은 서로간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할뿐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듯하다.

얼마전 서울 도서관에는 편입학에 관해서 재학생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말하는 대자보가 서반아어과 예비역의 이름으로 붙었다.

편입생들이 들어옴에 따른 문제점의 원인이 학교인지 편입생들인지 확실한 구분이 없는 관계로 이를 본 많은 편입생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상경대 94학번 편입생은 "대자보를 보고 편입생들에 대한 재학생들의 시각이 왜곡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며 "입학 시험이 영어 한 과목만으로 치뤄진것 등의 문제점들은 인정하지만 편입생들은 단지 학교의 편입학 요강에 맞춰 공부한것 뿐인데 이것만으로 편입생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학생들의 편입생들에 대한 좋지 못한 시각은 특히 서울의 경우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공간부족에서도 기인한다. 편입생들이 들어옴에 따라 도서관, 식당 등 더욱더 부족해진 공간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재학생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채 편입생을 받아들인 학교측이 문제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편입생들에게 잘못이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편입생들이 당하는 이러한 부당한 처사는 학교측의 행정적 문제로 계속된다.

"교무처 직원들이 편입생들에게 필요한 학점산출의 기준조차 모르고 있으며 단지 돈벌이로 편입생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무관심하다. 학교 시설을 익히는데도 꽤 오랜시간이 걸릴 정도로 학교를 들어온 이후로 행정적 설명이나 도움이 전혀없었다"라고 94학번으로 편입학한 또 다른 학생이 말했다. 이런 경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동덕여대에서는 한명의 교수를 전담시켜 편입생들을 담당시키고 학교시설 설명과 전공에 대한 소개 심지어는 교수들에게까지 인사를 시킨다고 한다.

또한 이렇듯 벌어진 재학생들과 편입생들과의 벽을 없애기 위해서 각 학생회들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탈어과 과회장 남종필(3)군은 "편입생들을 한명씩 만나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연락하며 함께 하려 노력했다"며 "이탈어과의 경우는 편입생들이 자발적으로 과 활동과 행사에 참여했다. 예를 들면 모꼬지나 체육행사 그리고 농활에 이르기까지 편입생들이 참가해서 함께했다"라고 말했다.

편입학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편입학을 주관하는 대학측이 단순한 재정확보책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편입학 자율화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대안없는 교육정책으로 재학생들과 편입생들이 피해를 입지는 말아야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학생들의 편입생을 좀 더 애정어린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와 서로간에 감정적지 않은 관점으로 편입학제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의 원인은 결국 대학당국의 대책없는 편입생 수용이기 때문이다.

편입생들은 외대에서 소외된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그들도 엄연한 주체임을 주지하며 이점에 있어 한 편입생의 말을 귀기울여 들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다른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걸 포기하고 외대에 왔는데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어쩌면 우리는 재학생보다도 외대를 더 좋아함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우리는 외대인이라고 생각한다"

김남균 기자

우리고을 이름찾기

동대문구

회룡리와 회기동

일제가 엣이름을 모두 바꾸어

전혀 다른 이름이 된 곳

동대문구의 회기동은 일제에 의하여 본래 지명이 전혀 다른 지명으로 바뀌어 버린 곳이다. 이곳은 그전까지 한성부, 동부, 인창방에 속한 곳으로서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회묘가 있었으므로 회묘리, 회릉리라 불렀던 곳.

1914년 4월 1일 일제가 경기도 고시로 경성부의 186개 동 구역과 명칭을 정할 때 그전 회묘의 '생각할 회(懷)'자를 간편한 '돌 회(回)'자로 바꾸고, 또 마을 이름에 '묘(墓)'자가 좋지 않다고 하여 비슷한 글자인 '터 기(基)'자로 바꿈으로써 전혀 뜻이 통하지 않는 회기동이 된 것이다.

우리말 가꿈터

생활 시평

힘을 모으자

한 학생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학내에 울려 퍼졌다. 재단과 학교와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울분으로.

선전국 학생들이 3일을 꼬박 새워 만든 대자보가 지난 14일(화) 학생처 직원들에 의해 찢겨졌다.

우리는 울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낸 눈물은 아니었지만 너무나 당돌한 학교측의 처사에 어이없어 하며 가슴으로 울었다. 하지만 우리를 더 울게 만들었던 건 학교측의 일방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는 상당수 - 일부라고 하기엔 너무도 많은 - 학생들의 태도였다.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대자보가 정당한 이유없이 찢겨져 나갔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물론 도서관 앞에서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도 가지 않고 학생처장의 사과를 받아 내겠다며 모여 앉은 300여명의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목이 터져라 도서관앞으로 모이자던 한 학생의 앰프소리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술을 마시며 각자 놀기에 바쁜 학생들이 더 많았다. 더구나 어쩐 이는 "그만 하라"며 시끄럽다고 귀찮아 하기도 했단다.

다음날 총학에서는 찢겨진 대자보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던 학생은 고작 100여명도 안됐다. 전날 철야농성을 해서라도 학생처장의 사과를 받아내자던 300여명의 학생들은 어디로 간 걸까.

물론 각각의 대동제 행사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대동제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가고 있는 것 같다. 힘을 한데 모아 이후 학원자주화 투쟁으로 연결하자던 참의미를 잊고 단순히 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대동제를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아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의 힘을 모아 만든 대자보들이 학교 당국에 의해 무참히 찢겨 나갔고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있는데 7,300명 중 100여명 밖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4일 간 치뤘던 대동제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수 있을까.

대동제는 바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한마당을 벌이자는 것이다. 각자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느꼈던 하나된 마음을 이제는 몇몇 사람에 국한하지 말로 전외대인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모으자. 우리는 외대인이다.

윤승노 기자

셔틀버스 운행은 왕산 교통문제 해결의 관건

"강의 들으려고 한 번 오르내리면 1시간이 금새 지나버려요"

용인캠퍼스 주차장에서 만난 류성렬(자연·컴퓨터공학 3)군의 말이다. 넓은 대지를 자랑하는 본교 용인 캠퍼스. 그 자랑만큼이나 모현에서 학교까지 먼길을 오르내리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모현에서 학교까지의 이동 문제는 항상 제기돼 왔던 문제지만 최근에 '셔틀버스 운행'과 '카풀제도(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가 맞물려 과연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해 학생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90년 셔틀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었으나 그 당시는 배차간격이 너무 넓어서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게 되고 학교에서는 계속된 적자로 인해 셔틀버스 운행을 중지하게 됐다. 중지로 인해 셔틀버스를 매각하면서 '학내 진입 버스는 모현-용인 간인 경우에 한해 무임승차를 허용한다'라는 약속을 학생들에게 했지만 버스기사와 학생간의 불화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117. 1117. 1113번을 운영하고 있는 대원여객 동서울 지부의 김소장은 "등교시간에만 무임승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외 시간은 요금을 받아야 한다"며 학교측의 약속과 다른 얘기를 한다. 현실적으로 학교측의 약속과 버스회사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은 버스 기사와 싸우느니 차라리 걸어 다니겠다는 생각에 30분씩이나 걸리는 거리를 매일 걸어다니는 학생이 생기고 있다. 이런 학생들의 불만율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얼마 전 총학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응답자의 90.6%가 셔틀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노선버스의 무임승차가 철저히 지켜진다 해도 셔틀버스는 있어야 한다고 대답한 학생이 전체의 70.6%를 차지해 노선버스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감과 그간에 고충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셔틀버스의 구입과 운용에 대해서는 '학교가 구입해서 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것'이 87.0%를 차지해 학교측의 투자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을 반영했다.

이처럼 셔틀버스 운행은 용인캠퍼스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학교측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학생회에서는 마냥 셔틀버스가 운행될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우선 실현가능한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카풀제도를 생각하게 되었다. 학내 약 8.7%만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카풀제도는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없는 학생들을 수익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학생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총학에서는 5월 넷째 주부터 카풀 스티커 발행과 카풀 회원신청을 받아 이번 학기 동안 시범실시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해서 2학기 때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카풀제도는 △카풀회원 모집의 어려움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운영상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총학에서 전체를 관리하기엔 너무 무리가 따르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결국 셔틀버스가 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측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셔틀버스의 운영을 탐탁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않다. 그러나 매냥 학생들이 불편을 당하며 생활할 수는 없는 것임으로 하루 빨리 셔틀버스 운용에 대해 학교당국의 조치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 카풀제도를 생활 속에 정착시키려는 노력 또한 경주해야 할 것이다.

윤승노 기자

바로 잡습니다

지난호 '화장실 낙서진단'에서 최규진군을 김창유(법·법학 2)군으로 바로 잡습니다.

이번주는 지면관계상 쉽니다.

문화웅달샘

새 책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인의 생활과 풍속(하)

친일파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온 임종국 선생의 글을 모아 놓은 '임종국 선집' 중 제 4권이다. 작가는 일제시기부터 해방, 분단, 한국전쟁, 그리고 1965년 한일회담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친일파의 존재에 대해 눈뜨게 되고 이때부터 친일과 연구에 몰두하게 된다.

이 책은 친일파에 관한 책이라기 보다는 제목 그대로 우리 민족의 생활과 풍속을 다루고 있다. 신분제도의 변천, 출판 아화 100년, 한국 전통의 계승 등의 장들을 통해 아직까지도 우리 의식속에 알게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를, 또 예전의 출판업계를 짐검하면서 친일파 문학에 대해서도 짐검하고 있다.

아세아 문화사/7,500

언론플레이

어느덧 신문기사 제목에까지 쓰이게 된 국적불명의 단어 '언론플레이'. 언론의 사적 사용을 일컫는 이 말을 제목과 주제로 한 책이다.

총 11장으로 이뤄진 이 책은 언론직 종사자와 '언론플레이' 주체와 그것의 관계 그리고 영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총체적인 언론에 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이 책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자유를 갖고 있는 언론은 결국 언론 플레이도 정상일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풀빛/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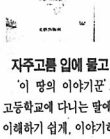
강준만

생활도서관 추천도서

사랑의 기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대하여 갈증을 느끼고 있다. 인간 관계에서 사회에서 애인들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사랑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은이는 인간이 사랑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 원인을 인간이 참된 자아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애써도 사랑에 실패하는 원인은 기술의 미성숙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사랑의 본질을 분석하고 사랑에 대한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문예출판사



에리히 프롬

자주고름 입에 물고 욱색처마 휘날리며

'이 땅의 이야기꾼'으로 불리우는 작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듯 풀어가는 문화비평서. '체계한 이야기는 아예 집어 치우고'하는 작가의 말처럼 시원하면서도 대륙적인 필치가 돋보인다.

한울/백기완

공연

사랑에 관한 5개의 소묘

한국 연극의 차세대를 담당할 젊은 연극인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극단 '오늘'의 작품으로 연장공연중이다.

변두리 여관방에서 이뤄지는 5개의 사건을 담은 옴니버스 형식의 연극이다. 마치 영화같은 속도감으로 표현된 이번 연극은 각각의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의 완결성을 이루는 작품의 완성도를 갖고 있다. '사랑'이란 일관된 주제로 도시인의 희생빛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영상

〈이주의 영화〉

마이티 아프로디테

환갑을 넘으며 27번째 영화를 만드는 블랙코메디의 거장 우디알렌의 작품이다.

마치 부부의 관계를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예전 영화의 관점대로 이번 영화도 사회에 퍼져있는 사회·도덕적 변퇴성과 허위 의식을 짚어본다.

결혼 생활의 위기를 겪는 주인공과 아내가 한 아이를 입양하며 겪게 되는 내용을 담은 영화는 마치 단테의 신곡을 연상시키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브라질

영국 몬티-퍼톤 희극단의 회원인 테리길리님의 1984년의 작품이다.

극도로 관료화된 디지탈사회에서 개인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있음을 깨달은 주인공의 이상향 추구를 다룬 영화이다.

전형적인 해피엔딩에서의 극적전환이 현실을 악습으로 끌어내리는 작품이다.

〈시청각실 상영영화〉

희생(Sacrifice)

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일시: 21일(화) 1회 14:00
2회 17:00
장소: 대강당(인문과학관)

이 달

구분 / 요일	A식단 1배식구	B식단 2배식구	C식단/석식 3배식구
월(20일)	김치볶음밥 (₩1,200)	소고기덮밥 (₩1,400)	육개장 (₩1,500)
화(21일)	산채비빔밥 (₩1,300)	해물짬탕밥 (₩1,400)	참치김치찌개 (₩1,300)
수(22일)	설렁탕 (₩1,500)	함박스텍 (₩1,500)	잡채밥 (₩1,300)
목(23일)	참치회덮밥 (₩1,500)	오무라이스 (₩1,300)	바삭덮밥 (₩1,400)
금(24일)	식 가 한 신 일		

* 본 식단은 물품 수급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공: 총무처 후생과)

그 누가 오월을 끝났다 하는가

미국의 공모에 대한 명확한 사실 밝혀야

80년 5월 17일에는 비가 내렸다. 96년 5월은 눈부시게 맑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궤변과 독단에 맞서 ,우리 국민의 성숙한 민주역량으로 5·18특별법을 제정해 낸 5월 광주에 첫발을 디딘 것은 17일(금). 전야제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예년과 달라진 것은 없는지 두리번 거리는 기자에게 먼저 말을 건 사람은 역시 택시운전기사 박기택(38)씨였다.

"이번 5·18행사는 모든 광주시민들이 함께 준비한 겁니다" 학생에서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나몰라라 했던 관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데 저들의 정치적 수단이지 실상 특별법이고 뭐고 다 국민들이 한 것이지 저들이 한 결과입니까?"라고 말한다.

17일(금) 금남로는 마치 80년 그날의 사진을 보듯 많은 사람들이 전야제 행사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광주학생들과 종교단체 등 각계각층의 주체적인 참여와 각 문예단체에서의 공연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다. "광주인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광주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박씨는 덧붙인다.

최초의 관·민 공동으로 열린 5·18행사가 지난 17일(금)·18일(토) 광주에서 열렸다. 그러나 광주의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진은 지난 17일 있었던 전야제 중 꽃다지의 공연 장면.

전야제를 구경하러 온 한 여고생은 "그때의 얘기를 들으면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현 정부가 명목상 광주문제를 대하려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항상 5·18행사에는 무슨일이 있어도 참가하죠"라는 말에서 16년이 지난 오늘에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11일(토)부터 시작한 이번 5·18 민중항쟁 16주년 기념행사는 지난 15년간, 짧게는 지난 몇개월간 헐차고 곤질기게 5·18내란 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을 요구해 온 광주시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기나긴 투쟁으로 이끌어 낸 국민적 승리를 계승하기 위한 모습으로 광주 곳곳에서 펼쳐졌다.

예년과 달라진 것은 대치하고 있는 전경들이 사라지고 구호소리 대신 연극과 춤, 노래 등 각종 문화행사속에서 전두환, 노태우 등 5·6공 잔재의 완전 청산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적, 제도적, 법적 청산을 외친다는 것이다.

"특별법의 제정은 우리의 끈질긴 투쟁으로 결국 쟁취했다"고 말하는 담시 총격부상자 노동규(42)씨는 "분명 5·18특별법 쟁취와 학살자의 주범인 전·노 전직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것은 민중의 승리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마치 모든 것이 끝난 양 광주시민에게서 그날의 아픔을 잊혀지기만을 염하고 있는 모습이라니 -"하며 울분을 가라앉혔다.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내용이 일반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시행령이 수행되고 있다는 치더라도 그들에게 아직까지 정부는 믿지 못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집 개통이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그놈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놈의 XXX"라며 "미국이 5·18 내란학살을 공모한 것을 밝혀내기전까지는 절대로 커피나 콜라 등 미국음식은 손도 안대겠다"는 아주머니도 계셨다.

17일(금) 승리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광주를 떠나올 때 말일동에서 만난 박승희 열사의 어머니의 한맺힌 울음소리가 가슴을 울렁거리게 한다. "살아있는 사람 한 풀어주려는 잔치보다 죽은 내딸의 한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여"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강은자 기자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외대 깃발 아래 모이자

한총련 출범식

얼마전 폐막된 대동제에서 우리는 '십년지기'라는 깃발을 들고 외대를 찾아온 한총련 출범식을 준비한 전북대 자전거 초청단을 만났다. 하룻밤 사이에 전주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를 타고 함께 올라왔을 초청단들의 열의있는 모습들이 눈에 선하고 한편 출범식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은 학교와 열의를 가진 전북대 학우들이 부러웠다.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애국 전북대에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제 4기 한총련이 출범식을 갖는다. 전대협 6년, 한총련 4년 이제, 전대협·한총련 1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전세계 학생 운동사에 유례없는 세계 최강의 학생운동 조직이 또다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리다. 한총련 출범과 함께 새내기 시절을 보낸 나는 한총련 세대이다.

한총련의 생활, 투쟁, 학문의 공동체로의 지향을 함께 고민했던 93학번으로서 이번 출범식은 나에게 4번째로 한총련 백만학우를 만나러 가는 기쁜 약속이다.

1학년때는 옷을 맞춰 입은 녹두대와 오월대가 행진하는 모습을 보며 들직한 마음이 가득했던 - 고려대 대운동장에서 어느 학교보다 커다란 애국외대 깃발이 뛰어다닐때, 깜깜한 밤이 되고 함께 간 동아리 선배들과 라이터로 반짝거리는 조명을 만들며 전야제를 황홀하게 바라보던 - 어린 나의 모습이 한총련 출범식 자리에 있었다.

2학년때 밤늦게 조선대에 도착했을 때 청년학생들의 열정과 정의와 의리가 넘치는 해방된 도시(조선대는 그야말로 하나의 해방구처럼 느껴졌다)에 입성하는 느낌이 강하게 와닿았다. 5월 광주에 백만 학우가 모인 것이다. 한총련이 새겨진 흰 모자를 쓰고 지나 다니는 경북대 마당에서 만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은 모두 낯이 익었다.

3학년 경북대에서 출범식 마지막날 대구 시내를 돌며 사고정권 김영삼정권을 규탄하고 5월 학살자를 처벌할 것을 외쳤을 때 대구시민들의 은근한 지지와 호응들에 가슴 부풀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대열을 자꾸만 껑충 모둠발로 앞으로 뒤로 쳐다보며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후에 한 잡지에서 한총련 출범식이 열린 대구 지방신문에 출범식의 부대비용으로 대구 경기가 일시적으로 좋아졌다는 기사가 호의적으로 실렸다고 전하며 앞으로 도시들이 한총련 출범식 유치에 나서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기사를 읽으며 백만 청년학생의 조직 한총련의 힘을 실감했다.

이제 4학년인 나에게는 이번 출범식이 마지막이 되겠지만 96학번 새내기들에게는 첫 경험이 될 것이다. 나와 새내기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과 경험이 될 이번 한총련 출범식에서 애국외대의 깃발아래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애국외대 7,300 학우가 함께 백만학우를 만났으면 좋겠다.

임 민 희

〈여학생위원회 위원장, 서양·불어 4〉

□ 공연이야기 1 - 통일노래 한마당

자, 이제 우리의 삶을 노래하자

각 노래패 내의 유대강화와 역량강화, 그리고 외대인 단결의 장이 되었던 '통일노래 한마당'(통노한)이 올해로 일곱번째를 맞았다. 대동제 첫날(13일) 개막식과 함께 열린 이번 행사는 '자, 이제 우리의 삶을 노래이게 하자'를 기치로 이전까지 행사에서 간과해 왔던 ,노래와 우리 삶의 일치를 추구하고자 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통일, 학자, 학교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고민들을 다뤄 예전에 비해 다양한 내용의 노래가 선보였다. 행사준비를 맡았고 축하공연까지 마련한 외대노래창작단 '청년'의 단장 이영미(동양·중국 4)양은 "축제가 아니라 대동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며 "일부 사람만의 축제가 아닌 바로 모든 외대인의 축제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중국어과 '풋갓춘 마디'의 '우리의 함성으로'가 1등 학원자주상을 수상했다. 2등 민중통일상은 독일어교육과 '세시리'의 '어느 외톨이의 미소', 3등 애국외대상은 터어키어과 '터울림'의 '푸른 날개짓으로', 그리고 대안없는 학부제 실시를 비판하는 내용의 가사로 학생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장대노래패연합의 '고등학교 4학년'이 특별상을 수상해 많은 학생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참여한 노래패들의 연습 부족으로 인해 좋은 노래인데도 이를 잘 표현하지 못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음향상태까지 고르지 못해 가사전달 뿐만 아니라 행사의 수준을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리고 자기과 노래패의 공연이 끝나면 자리를 뜨는 바람에 시작할 때 700여명이었던 학생이 나중에는 200여명 밖에 남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올해 통노한의 가장 멋진 순서는 행사의 마지막이었다. 참가했던 70여명의 노래패들이 모두 나와 '한걸음씩'에 맞춰 신나는 율동을 선보였고 시상이 끝난 뒤에는 모든 학생들이 노천극장에 뛰어나와 함께 '쳐음처럼' '바위처럼' 등의 노래에 맞춰 춤을 췄다.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도 어깨동무를 하며 진정한 대동의 장을 마련한 행사였다.

윤승노 기자

□ 공연이야기 2 - 노래가사 바꾸기와 춤추기

노래속에 묻어나는 학자 애기

흔히 대학의 멋을 얘기 할 때 나올 만한 공연이 학원자주화라는 취지와 함께 개최되었다.

'학원 자주화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힘찬 함성'으로 '96 희망의 대동제와 같이한 '노래가사 바꾸기와 춤추기'(노가바)가 시작됐다. 노천극장을 가득채운 학생들은 각각의 참가자들이 공연을 마칠 때마다 격려와 응원의 박수로 맞이해 분위기는 갈수록 고조되었다. 공연 중간에 외대 율동패들이 공연을 할 때쯤은 학생들이 모두 나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래가사의 내용성과 예술성 그리고 협동성을 위주로 평가된 심사결과로 이번 노가바에서 3위는 서양어대와 행정학과가 2위는 이란어과가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소개되어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던 인도어과는 '미녀와 야수'라는 곡을 학원자주화 투쟁의 내용으로 개사해 흥겨운 춤과 어우러져 멋지게 1위를 차지했다.

이번 공연에서 중간 운영에 있어 어설픈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인 몇몇 장면은 관객과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공연이 되는 것으로 묻혀질 수 있었다.

공연이 끝나갈 무렵 대형스크린을 통해 바라본 이번 서울 대동제의 모습은 교내 곳곳에 마련된 대동제 마당을 비춰 노천에 모인 학생들은 낯익은 사람들이 스크린에 비춰질 때마다 환호를 보내며 즐거워 했다.

공연이 끝난 후 박성동(상경·경영 4) 총학생회장의 폐막선언 후 노천 중앙에 커다랗게 마련된 모닥불을 중심으로 '강강술래'에 맞춰 춤추며 어우러져 이번 대동제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김남균 기자

문화단신

용 인

외비가디 공연 개최

통기타 동아리인 외비가디가 오는 21일(화) 학생회관 앞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고학년 선배들과 새내기들의 단합을 위한 자리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자작 7곡과 '울릉도 트위스트' '76-70=사랑' '춘천가는 기차' 등 다양한 곡들이 연주될 예정이다.

회장 김주현(서학·이태리어 2)군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외비가디 동아리의 성격이나 모습들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 입지를 넓히고자 한다"라고 바램을 밝혔다.

누리에 전시회 열려

제 15회 누리에 사진전이 지난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5일간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캠퍼스 라이프'라는 주제로 다양한 각도에서 본교의 모습을 담아낸 총 48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전시회 준비와 관련 회장 박시전(동구·향기리 2)양은 "준비기간이 길었음에도 작업하는데 장시간이 걸려 어려웠다"라며 "이번 행사는 학교에 대한 외대인의 자긍심 고취와 누리에 홍보 차원에서 마련되었다"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서 울

서반아어 영화제 상영

지난 14일(화)·15일(수) 이틀에 걸쳐 서반아어과에서는 '서반아 영화제'를 개최했다.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스페인어권 영화들이라 학생들의 참여는 그리 활발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과의 특성을 살린 행사로 평가 받고 있다. '엘 도라도' '아만테스' ' 오피셜 스토리' ' 안나 이야기'등 4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행사를 준비한 문화부장 양종일(3)군은"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토론문화를 형성하는데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외대합창단 공연 가져

외대 합창단의 제 9회'하모니 데이(HARMONIA DAY)'가 지난 17일(금) 대강당에서 열렸다. 2학기에 하는 정기연주회와 대조를 이루는 이번 공연은 합창, 중창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그 동안 연습해 왔던 실력을 맘껏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는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몽금포 타령' '방랑자' 등의 우리 가곡과 '러브 이즈 블루(LOVE IS BLUE)' '소 머치 인 러브(SO MUCH IN LOVE)'등의 외국곡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공연이었다.

사회보도

기무사의 권위는 무소불위

시사뉴스사 주변에서 기자들 미행 감시

5·6공 군사독재정권시절이 아닌 소위 문민정부라고 하는 현재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의 언론탄압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국군기무사의 탄압을 받고 있는 시사뉴스사의 긴급기자회견 장면이다.

주간지인 시사뉴스사에 대한 군정보기관인 기무사에 감시 및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기무사의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의 이유는 시사뉴스가 기획으로 잡은 '기무사 내부인권탄압여전'등의 기무사 관련 연재기사의 보도를 막으려는 것이었다.

문제가 되는 기사의 내용은 기무사의 간부들이 폭력승의 청탁을 받고 충남 마곡사 주지직을 찬탈하는데 협조한 후 간부직위를 이용 이권에 개입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기무사 비리 관련 기사는 4회연재를 기획했는데 그중 2회는 기무사령관인 임재문 중장비리에 대한 것이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시사뉴스 77호가 발행되자 기무사 간부들이 몰려와 명예훼손, 고발 운운 하며 연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 시사뉴스사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기무사 요원 20여명이 교통회관에 있는 시사뉴스사 주위에 배치돼 기자들을 미행, 감시하였다.

시사뉴스사 특집부차장 이종원씨에 의하면 이들이 기무사 요원이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는 주위에 배치되었던 차를 차적조회한 결과 기무사 소속 차량임이 확인됐고, 기무사 요원이 관리실 직원에게 '기무사에서 왔는데 주차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다고 한다. 기무사는 또 잡지발행인 강신화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후, 발행인 집주위에 기무사요원을 배치 감시하였다. 또한 지난 1일(수)에는 새벽에 시사뉴스사 사무실에 서초서 경찰일을 사칭한 8명의 괴한이 출현 "억대 도박사기단 제보를 듣고 출두했다"라며 사무실을 뒤지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이들이 돌아간 후 기자들이 서초경찰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통회관은 송파서 관할이며 서초서에서는 도박단 제보는 물론 경찰을 파견한 적도 없다고 한다. 시사뉴스는 기무사가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 발행인을 구속시킨다는 공작을 주도면밀하게 세우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기무사령관의 비리기사를 막고 최종적으로 시사뉴스의 발행을 중단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탄압에 시사뉴스 직원 일동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기무사의 불법사찰에 항의하는 서한을 작성, 통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원차장은 "우리는 기무사 비리보도를 충분한 근거자료에 의해 했으며, 언제라도 이를 법정에서 증명할 수있다.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고도화된 언론통제의 일면이다"라며 "이번 사건을 끝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언론사에 없어야 하며, 우리 직원들은 기무사 탄압이 중단될 때 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기자의 눈 목숨을 걸어야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으로 숨진 고 노수석군이 죽은지 49일째 되는 날 연세대에서는 노군의 추모 및 5월 투쟁승리를 위한 청년 학생 결의대회가 열렸다.

대다수의 학교가 대동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노군이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에 의해 죽은지 49일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노군의 죽음의 원인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다. 담일날 같이 있던 시민들과 학생들의 증언, 노군의 몸에 나타난 외상들, 이 모든 것이 증거인데 아직도 심장마비에 의한 죽음이라고 한다. 노수석군의 죽음 이후 며칠동안은 경찰의 진압방식이 공격형이 아닌 수비형의 형태로 돼 부상자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찰의 과잉진압은 되살아나 결국에는 남총련·부경총련 학우를 실명시키는 사태까지 일으켰다.

얼마전, 정부에서는 사회기강 확립과 좌익세력 척결을 외치면서 불법시위는 불허하며 허가된 집회도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시간을 어기면 강제해산시킨다고 발표하였다. 시위진압을 해산위주가 아닌 검거 위주로 한다는 것이다.

노수석군이 죽었을 당시나 남총련·부경총련 학우가 실명을 당했을 때도 명분상이지만 경찰의 진압방식은 해산위주였다. 그러나 이제는 검거위주 강제진압방식으로 바뀐것이다. 경찰에게는 마지막 남은 장애물이 없어진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시위에 나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 것 같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다치고 제2의 노수석군이 나올지 걱정이 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학생들이 다치고 죽어도 경찰은 꿈쩍도 안 할 것이다. 그들에게 책임추궁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란다. 이제 과잉폭력진압은 없어져야 하며 경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석이의 한을 풀기 위해서도 죽음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김주영 기자

미국·정부·재벌을 위한 PCS

미국에 통신 시장 개방, 재벌중심의 선정과정

21세기 핵심산업을 하나 꼽는다면 정보통신 산업일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 산업의 중심은 PCS(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일 것이다.

PCS란 개인휴대통신으로 일반전화와 이동전화가 합쳐진 형태이다. 기존의 이동전화가 음성위주 서비스인데 비해 음성과 데이타, 영상서비스가 가능하며 가볍고 값싼 단말기를 사용하고 높은 접속률과 양질의 통화품질, 싼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민 대상의 통신서비스이다. 전문가들은 2005년 경에는 PCS가입자가 1,200만명 5조원의 시장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 결과 PCS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등 막대한 이윤이 보장되는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의 이권사업'이기 때문에 재벌들이 너나없이 몰리고 있다. 게다가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가 재벌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PCS를 구축하려면 공중통신망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업인 한국통신만이 공중통신망을 갖고 있고 재벌들은 갖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재벌들이 공중통신망을 갖추려면 막대한 설비비용이 들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에게 사용료를 보다 비싸게 받을 것이다. 또한 재벌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한국통신은 독도나 백령도에도 전화를 설치했지만 재벌은 수익성을 따져 돈벌이가 안되는 지역은 PCS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얼마전 주파수 공용통신(TRS) 신청결과 재벌 기업들은 강원이나 충북지역에 한 기업도 신청하지 않아 이 지역주민들이 서비스를 못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듯 재벌은 정보통신을 잡아 한 몫 벌려는 의도만 있을 뿐 국민의 편익은 안중에도 없다.

PCS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로 막대한 이윤이 보장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의 편익보다는 수익성을 위해 재벌편향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재벌에게 PCS 사업주도권을 주는 것은 정보통신부이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부는 PCS사업권을 국민을 위한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통신에게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결국 재벌들에게 넘기고 말았다. PCS 참여업체는 5개가 되는데 통신장비제조업체는 4대재벌 (현대, 삼성, 대우, 엘지) 중 1개, 비통신장비제조업체는 30대재벌(금호, 한솔, 효성 등)중 1개, 선경이 지배주주인 한국이동통신, 포철과 코오롱이 지배주주인 신세기 통신, 마지막으로 한국통신 자회사가 된다. 그러나 한국통신 자회사(한국통신의·부속회사이지만 재벌들이 지배주주로 있다)로 하는 PCS사업권은 사실상 한국통신에게 사업권을 준 것이 아니다.

한국통신과 자회사는 벌개의 회사이며, 정부통신부가 한국통신을 규제할 뿐 만 아니라 자회사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한국통신의 자회사 통제력마저 빼앗은 상태다. 결국 이 모든 것이 PCS라는 통신의 핵심산업을 한국통신으로부터 분리해 재벌만 살찌우는 통신분할 음모이다.

80년대 후반 미국에 의해 이뤄진 98년 통신 시장개방과 정부의 경쟁력없는 재벌편향 정책으로 21세기 국가산업을 선도하고 국부의 원천이 될 정보통신산업은 망쳐지고 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에게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허윤숙 기자

한통노조 유덕상 위원장을 만나

"기간통신망을 거저 이용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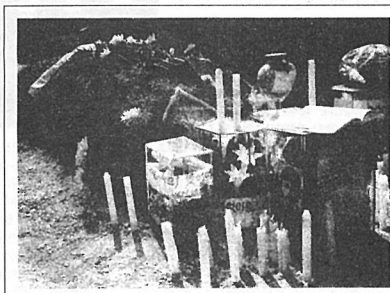
지난 15일(수) 한국통신 노동조합(노조) 회의실에서 한국통신 유덕상 노조위원장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기자들간의 간담회가 있었다.

지난해 한국통신 노조는 임금인상과 재벌민영화 반대를 중장하며 투쟁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국가전복 세력'이라는 선전과 함께 61명의 노조간부가 구속, 31명이 해고되었다. 유위원장은 지난해 투쟁에 대해 "외부적으로 현정권의 공공부문의 노동통제를 폭로한 계기였고 내부적으로 직권중재라는 노동악법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의식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평가했다.

한국통신 노조는 올해 6월 PCS(개인휴대통신) 사업권이 발표됨에 있어 '통신주권수호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 70여개 단체가 참여해 '정보통신 주권수호와 재벌독점 방지를 위한 PCS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PCS 투쟁과 관련해 유위원장은 "자주적 통신사업을 위해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공기업이 PCS 사업을 해야 하며 굴욕적인 한미통신 협상의 결과물인 PCS 사업자 선정은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통신 협상에서 미국은 PCS 사업자 선정에 대해 한국통신을 제외한 재벌편중의 구체적 지침을 내렸다. 유위원장은 "한통통신 노동자 천여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만든 세계 8위의 기간통신망을 거저 이용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다"며 미국의 PCS 사업자 선정의 관여 이유를 말했다.

앞으로 활동에 대해 유위원장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합리적인 통신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노동자와 함께 통신주권수호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위원장은 지난해 투쟁과정에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지 얼마 안되지만 뜨거운 열기는 식지 않고 더욱 단단한 결의로 다져있었다.



지난 5월18일(토) 광주 망월동 노수석군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의 묘소에는 각계에서 온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아직 5·18과 노군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어느것 하나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고 노수석군의 무덤이다.

고영진 기자

한국인의 무한에너지, 그 땅에 간다 - (2)고구려 광개토대왕편

■광개토 대왕비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장수왕이 414년에 세운 높이 6.39M의 거대한 석비로 예술적 역사적으로 소중한 자료이다.
(현재 소재는 중국 집림성 집안현 대왕향)

동으로 서로 북으로.... 아, 그 광활함이여!

광활하고 드넓은 중국땅을 지배하던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개토대왕의 기상을 물려받은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알렉산더는 37세의 나이에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리에겐 18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
드넓은 중국땅을 손 안에 둔 광개토대왕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영토를 넓히고 안으로는 백성을 평안하게
보살필 줄 알았던 광개토대왕-
동으로 숙신(肅愼), 서로는 후연(後燕), 북으로 비려(碑麗)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녔던
장군이자 임금이었습니다.
민인의 귀감이 되었던 그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아시아 속의 고구려, 세계 속의 한국인의 위상을 이루어낸
그 기개가 오늘, 한국인의 무한에너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이게 하는 발걸음-버팔로가 함께 합니다.

outdoor shoes Buffalo

토탈패션의 名家 금강제화 株

Atlanta 1996

5·18 16주년 행사를 바라보며

진정한 오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학살자 완전처벌·미국 공개사과 촉구로

구영조기자

현재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학살자는 처벌되지 않고 있다. 또한 5·18 미국의 개입이 드러났음에도 공개 사과조차 없다. 사진은 지난 17일(금) 광주도청 앞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16주년 전야제다.

80년 5·18민중항쟁 이후 16년동안 범국민적으로 일어난 투쟁을 통해 지난 해 12·12와 5·18관련 특별법이 제정됐고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하지만 현 정권은 이것을 자신의 것인 양 하였고 두 전직 대통령이외의 5·18학살자는 손도 대지 않고 있다. 이번 5·18민중항쟁 16주년 행사는 이런 현 정권이 하지 않는 책임자 완전처벌을 국민의 손으로 하자는 결의의 장이었다.

5·18행사는 투쟁을 통해서 89년 이후에 합법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91년 이후에야 전남도청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지금까지 5·18행사는 16년동안 투쟁의 기운을 고양시키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 이미 5·18은 해결됐다는 축제의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었다. 여기에는 정부와 열린음악회 등의 언론의 역할이 컸다. 행사를 준비한 '5·18민중항쟁 16주년 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 '집행위원장 정구선씨는 "이번 5·18행사는 예년과 달리 투쟁을 떠나 전국화와 세계화를 할 시점이다"라고 말해 행사를 기념하는 수준으로 계획한 한계를 보였다.

한편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광전연합)은 5·18 근본문제인 미국개입에 대해 공개사과 요구와 5·6공 화해를 모색하는 현 정권 고립과 재판투쟁, 5·6공 잔재 청산을 위한 사회개혁 투쟁, 그리고 오월 정신을 시대 정신으로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한다는 4대 투쟁 과제를 정해 놓았다. 광전연합 정책부장 박영진씨는 "오월 문제에 대해 해결이라는 측면으로 다가가는 정부를 저지해야 한다"며 "올해는 진정 5·6공을 청산하는 새로운 시점이므로 투쟁의 시작이다"고 밝혔다.

이번 5·18행사는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또 하나의 특징이다. 정부는 5·18기념사업비를 작년보다 더욱 많이 제공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16년동안 민중을 탄압하던 자들이 이제와서 손을 내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정 정부가 5·18문제를 해결하려면 책임자 완전처벌과 미국의 공개사과 촉구 및 희생자 완전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월은 이제 시작이다.

김주영 기자

시론 *다시 특별검사에 대하여*

특별검사제, 이제 현명한 결단만이 필요할 뿐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부터 비롯하였듯이, 우리의 경우는 5·18 사건에서 특별검사의 법제화 논의가 극에 달하였다. 정치권의 타협으로 특별검사제는 수용되지 못하였으나, 처벌을 위한 특별법은 제정되어 현재 그 재판이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며 그 속에서 특별검사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다시 꺼집어낸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종결된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가 되었고 재판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의 필요성은 공판과정에서의 공소유지에서보다 수사와 기소라는 초기단계에서 강하게 요청된다. 즉 자신의 사건을 자기가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간단하고도 명료한 원칙에서 특별검사의 존재는 필요하게 된다. 검찰은 사법작용에 관여하기는 하나 본질상 행정부에 가까운 것이다. 현행법상으로 검사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며,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검찰 내부조직은 상명하복의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전현직 고위공무원이 관련된 사건의 수사에 있어 검찰은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본질적 속성을 가지는 것이다.

5·18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준 '공소권 없음'과 '공소권 있음'의 상반된 태도는 그러한 예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검찰은 처음에 '성공한 쿠데타'의 이론을 내세워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내렸다. 엘리네크의 사실규범력설과 켈젠의 근본규범설 등이 논거로 동원되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실패한 쿠데타'의 이론으로 기소를 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여기에는 칼슈미트의 헌법제정권력설이 근거로 원용된 듯 하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권 '없음'에서 '있음'로 돌변한 이유는 법리공방의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대통령의 의사에 의해서였다. 그 어떠한 이론적 근거나 현실적 필요성을 내세울 것도 없이, 불과 일마전의 그와 같은 경험적 사실에서 특별검사의 정당성은 자명해진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영향력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특히 별도의 절차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임명된 특별검사가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특별검사제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동시에 요구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사법정의의 실현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특별검사는 특별법의 제정 없이도 가능하다. 현행 검찰청법에서 대통령이 일반검사를 임명하듯이, 그 절차에 따라 특별한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정성이 담보되는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로 임명해 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적 분쟁과 시간적 낭비를 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의 특별법에 의하지 아니한 미국의 특별검사의 예에서 볼 수있는 것이지만, 물론 이상적인 것은 독립된 법률에 의한 특별검사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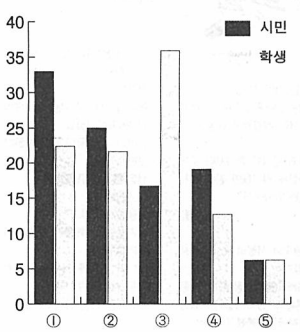
그동안 특별검사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에 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왔다.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거기에 덧붙일 논리적 근거가 아니라 현명한 결단일 뿐이다. 5·18재판의 과정에서 다시 특별검사를 생각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문제는 향후에도 언제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차병직 〈변호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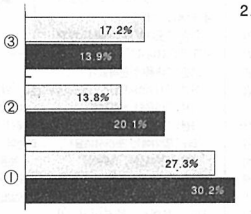
5 18 설문조사

미국, 5·18계획 승인 방조 56.5%
관련자 전원 처벌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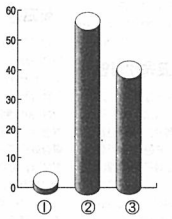
1. 5월문제 해결의 걸림돌은?

① 현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
② 관련자의 진실 은폐
③ 5·6공 세력의 현존
④ 특별검사제의 부재
⑤ 언론의 불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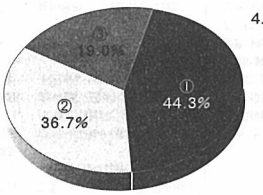
2. 5월문제 해결의 가장 미흡한 점은?

① 관련자 전원처벌
② 광주시민 명예회복
③ 5월정신 계승



3. 5·18과 미국의 관계는?

① 관련없다(2.2%)
② 미국이 5·18계획 승인(56.4%)
③ 군사권 쥐고 신군부 배후조종(39.9%)



4. 5·18 미국개입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

① 모든 관련자료 공개 요구
② 미국정부의 공식적 사과 요구
③ 국제 사법 단체에 제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광주전남지부에서는 5·18 민중항쟁 16주기를 맞이하여 광주시민과 광주 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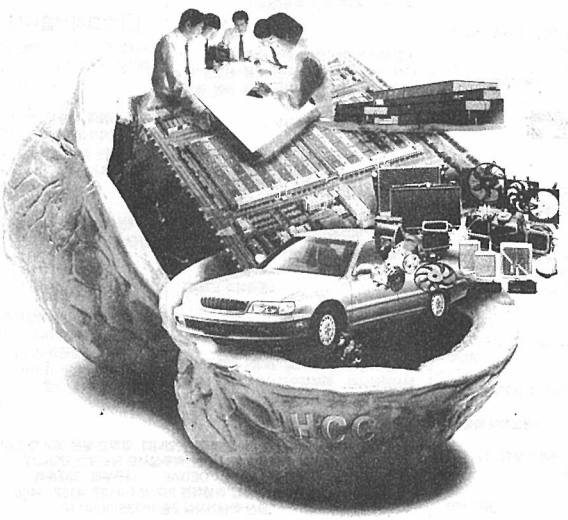
이번 조사를 통해 5·18 특별법이 제정되고 전두환·노태우씨가 재판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광주시민들은 5·18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80년 5·18 당시 미국의 개입여부가 확인되고 있는 이 때 미국에 대한 인식정도는 어떠한지도 파악해 보고자 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광주전남지부 공동기자단

외대만평

대화(對話)인가 대화(大禍)인가 ? 송근우

HALLA 지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한 라



국제경쟁력으로 세계화를 지향하는 한라공조,
이제 21세기 세계 5대 공조업체로 도약합니다.

창업 10년만에 세계 10대 자동차 공조업체로 성장한 한라공조는
이제 자동차업계를 질어질 세계 5대 공조업체로 21세기를 열어가겠습니다.

1986년 만도기계와 미국 포드사가 합작으로 설립한 한라공조는
창업 10년만에 명실공히 세계 10대 공조업체로 성장, 발전했습니다.
자동차용 라디에타 및 열교환기 등을 생산, 국내외 유수의 자동차 업계에
공급해 온 한라공조는 이제 그 무대를 세계속으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세계화 추진 방안으로 89년에 캐나다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96년에는
자동차 부품업계 최초로 태국 및 포르투칼 현지법인을 설립, 자동차 산업의
세계화, 현지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눈부신 도약은 유능한 인재와 우수한 기술, 그리고
고객우선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세계 변화에 대처하고 세계화를
이룩한 땀의 결실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기술과 품질로 국제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여
자동차 업계의 발전을 질어질 세계 5대 공조회사로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HCC 한라공조주식회사

漢拏 한라중공업·만도기계·한라건설·한라시멘트·한라공조·한라자원·한라해운·한라콘크리트·한라창업투자·캄코·마이스터·한라마이티정보통신·한라제지·한라일렉트로닉스·한라환경산업·배달학원

□김영삼 정권 3년 대학교육정책의 현주소를 조명한다

'사회민주화' 외면한 장미빛 청사진

교육,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교육대통령'을 자처한 김영삼정권이 집권 3년을 맞고 있다. 5·31교육개혁안, 뒷따른 제2차 교육개혁안, 그리고 교육에산 GNP 5%확보… 수많은 교육정책들이 쏟아졌고 교육의 유토피아가 제시됐다. 그러나 지난 3년동안 대학과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는 오히려 확대재생산됐고 학벌이 최우선시되는 사회풍토는 더 깊어지기만 했다.

한국대학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지난 3년간 김영삼정권의 대학교육정책을 평가한다. 편집자

국민소득 만불시대를 무색케하는 대학교육재정, 정권의 이데올로기와 자본의 영향권으로 부터 자율성을 확립하지 못한 교육. 김영삼 정권 3년은 반교육개혁으로 요약된다.

개혁되어야 할 한국대학의 고질적인 병폐는 무엇인가? 다소 단순화하여 말하자면 첫째, 그것은대학(교육)이 정권의 이데올로기와 자본의 영향권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확립하지 못해서 ,초래된 대학 자율토대의 부실이다. 대학 총·학장의 직선제가 법제화되지 못한 채 있기 때문에 총장직선제 폐기론이 최근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학생들의 총학생회와 대학간 기형적 경쟁과 변화만을 조장하는 기제로 대학종합평가인 정제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95년은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그 자율화의 구체적인 단계적 준비작업을 생략하는 '세계화'담론만 무성한 해가 되었다. 개념정립이 안된 정부의 '세계화'구호는 역설적으로 최근 segyewha로 영문표기가 통일되면서 일류화, 합리화, 일체화, 한국화, 인류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는 총체적 국가전략인 '한국적 고유개념'으로 억지춘향처럼 겨우 정리가 되었다.

사회현실 무시한 5·31교육개혁안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이하 교개위)가 95년 5월 31일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는 점이다. 교개위의 5·31교육개혁안이나 교육체제 개편안 또는 수정안은

첫째, 재정적 지원정책이 전혀 없는 안으로, 사실상 국가는 현대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전환하는 현재 시기에서 더욱 중요한 국가적인 공공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책무를 교육재정 GNP 5%안을 통하여 무마하려는 것이다.

둘째, 한국통신과 현대자동차 등 노동자들의 기본권마저 박탈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인정하기 않으려는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인 현실 조건과는 상반되게 이름뿐인 능력위주의 사회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단순히 서비스 상품으로 파악하여 교육공급자 중심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의 축을 바꾸려는 대학자율을 강조하고 급조된 자율화 분위기 속에서 대학내부와 대학간 기형적 경쟁과 변화만을 조장하는 기제로 대학종합평가인 정제를 사용하고 있다.

셋째, 규제·통제중심 학교운영에서 탈규제·자율·책무중심학교운영을 강조한다. 그러나 대학설치기준령이 온존하고 정략분석 중심이며 객관성이 결여된 대학서열 매기기 위주의 인정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에 비급같 권한과 체제를 갖춘 교육과정평가원(가칭)을 신설하는 것은 탈규제라는 미명하에 교육에 대한 통제를 내재화하면서 교육기관을 이데올로기 국가장치로 고착시키려는 의도를 더욱 분명히 하는 것이다

진전없는 제2차 교육개혁안

한편 교개위는 지난 2월 9일 제2차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신직업교육체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혁안은 일단 산업현장에 나서면 자기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가 사실상 봉쇄되는 우리의 교육구조를 개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현시 풍조가 온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직업교육이 '2류 교육'으로 전락되었으며 그 결과 모든 국민이 4년제 일반대학만을 고집하는 현상이 생겨난 것이다. 교개위는 이러한 국민의 교육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직업교육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파악한 것이다.

교개위의 이번 개혁안은 입시 낙오자들의 피난처로 인식해 온 현행 직업교육체제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교육고통을 줄일 수 없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재정확보책이 미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개혁안은 4월 총선을 겨냥한 전계획은 인권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외면하면서 재산권에 기초한 가진자들의 교육선택권만을 보호·강화시키려는 정책인 것이다.

'교육대통령' 3년 뒷걸음친 교육개혁

그렇다면 김영삼정부는 지난 3년동안 '교육개혁'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였나? 대학과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는 사학재단과 정권과 교육부의 공생관계속에서 그리고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에 의해서 오히려 확대재생산되어왔다. 자칭 '교육대통령'도 그 문제해결을 위한 발본색원적인 개혁안을 기층 세력의 압력에 밀려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이 이틀테면 김영삼 정권의 교육정책을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인 셈이다.

94년은 '국제화·개방화'의 구호 아래서 국가적 차원의 재정적 후원책과 대학간 협력체계 수립없이 대학간 무한경쟁만은 부추기는 '국가 경쟁력 강화'담론의 해였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형식적인 시행 제도 개편안이라는 의혹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직종간, 학력간 임금 격차가 온존하는 현실을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개혁안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체제개편안으로 전락한다. 학력위주의 사회를 능력위주의 사회로 바꾸어 내는 것이 이 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일 것이다.

특히 교개위는 전문대학원제도를 통하여 오히려 학력 인플레를 부추기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전문대학원제도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실시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지 교양인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이 체제하에서는 사립전문대와 사립대학이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텐데 교개위는 사학재단의 전환을 막고 책무성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이번 개혁안은 또 다른 많은 사회문제, 특히 대학운영 비리나 부정입학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학운영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예결산의 공개와 외부감사제도 도입, 대학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교수협의회를 공식기구화 등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교개위의 교육관계법 개정안에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교육개혁안은 진정한 개혁안이 아니고 교육체제 개혁안이거나 수정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협력체제구축하에 학교간 '민주화' 경쟁을

더우기 위와같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마치 완료된 것처럼 전제하고 그려진 장미빛 청사진은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장구한 혁명의 추진정도에 정확히 정비례하여 현실화될 수 밖에 없다. 국제화·개방화·세계화 구호가 표방하는 국가경쟁력강화도 결국 과행적인 교육정책을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정상화하고 학력중심의 사회를 능력중심 사회로 탈구조해야만 가능해질 것이다. 학벌보다는 능력이 평가되는 민주적 사회를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오히려 학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학교간 민주화 경쟁'을 더욱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건은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교육의 상대적 자율성을 확립하는 정도에 따라, 한국사회의 민주화 추진정도에 따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육에 대한 교육주체의 통제를 확대하는 정도에 명확하게 비례해서 만들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박 거 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

외대와 나

열린 마음으로 열린 학교를 보여주자

정 일 환
〈옹인캠퍼스 인문·경상대 교학과 사무주임〉

신록의 푸르름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캠퍼스 풍경을 보면서 자연의 변화에 경건해진다.

풀 한 포기 나뭇잎 하나 얼은 대지를 참고 기다려 온 모습에서 그 안에 속한 모든 구성원 모두는 우리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궁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다.

지난 겨울방학 동안 가족들과 형제가 사는 미국엘 다녀온 적이 있다.

여행 중에 조카가 다니는 스탠포드대학을 둘러보았는데 학교가 웬만한 한마을 보다 넓어 모든 차들이 학교를 질러 다녔고 독립 건물로 이뤄진 북스토어는 엄청난 양의 책과 기념품을 바쁘게 팔고 있었다.

그 서점은 연중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문을 열고 있었다. 자전거를 타며 교내로 돌아다니는 여러 학생들로 학교는 살아 숨쉬는 듯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최근 영화 두 편과 KBS 열린음악회 성균관대학편을 보면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성대공연은 전 구성원이 하나됨을 보여준 비교적 성황리에 치뤄진 공연이었다고 한다.

오는 5월 21일 서울캠퍼스에서 MBC 청소년음악회와 6월 7일 용인캠퍼스에서 KBS 열린음악회가 녹화 공연된다.

대중적인 대표적 두 음악 프로그램의 우리대학 공연으로 5월과 6월의 캠퍼스가 더욱 생동감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학생, 교수, 직원의 외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진정한 축제의 한마당이 없어 씁쓸한 나날이 지속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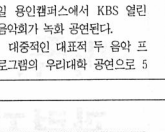
타 대학처럼 우리는 온 구성원이 하나되는 대중적인 운동부가 없어 수천명이 함께 운동장에 나가 박수치며 어깨동무하는 기회마저 없음을 아쉬워해왔다.

동질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조직을 활성화하는 모티브는 없다. 그것이 애교심이 되기도 하고 애사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학교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그것은 단지 준비하는 몇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두 손을 마주 쳐야 소리가 나듯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닫힌 학교가 아닌 열린 학교로, 닫힌 마음들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이번 음악회를 가슴 벅차게 맞이하자.

내용이 문제였어



○…지난 대자보 사건 대화내용 발췌입니다.

학생: "도대체 왜 저희의 대자보를 찢으셨나요?"

그분: "내용이 문제였어"

학생: "사과하시죠!"

그분: "내용이 문제였어"

학생: "도대체 '내용이 문제였어'라는 말밖에는 못하시나요?"

그분: "문제였어, 내용이"

학생: "진실을 말한것 뿐인데 도저히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가르쳐주세요!"

그분: "문제는… 내용이었어!"

〈균〉

○…최근 한의사와 약사들간의 갈등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암쪽의 눈치만 보며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소신없이 암쪽입장을 조금씩 들어주는 정도의 해결책만 발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곧 복지부에서 이런 해결책을 내놓을 거라는데…

"녹용과 인삼은 한의사만 조제하고 산삼은 약사들만 판매한다. 단 감초는 약방에서"

〈명〉

○…광주와 서울의 5·18 행사일지

5월 18일 광주, 정부의 재정적 지원속에 성악가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경찰들은 집회집시 유지에 온 힘을 다했다. 새마을 운동원들이 음료수를 돌렸고 시장이 나와서 애도문을 읽었다.

'이제 광주는 그날의 아픔을 딛고 21세기 세계화에…'

같은 날 서울. 5월 18일 관련 집회

최루탄에 콜록거리는 소리가, 낯나는 방패가, 끌려가는 학생들이 있었다.

〈진〉

○…야당에 있어보면 아실꺼예요

떡값이 뇌물되고
통일발언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그러나 신한국당을 사랑하다보면
신한국당에 입당만 하면
다 일없어요
뇌물이 떡값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이 민주인사되더라구요.
게다가 그렇게 가난하던 내가
집두 사구 차두 사구
신한국당 정말 신기하데요

〈형〉

신한국당을 사랑하다보면

비둘기철판

왕산골

□알립니다

·외불회(外佛會)에서 불기 2540년 5월 24일(금)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연등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연등 접수를 원하시는 불자님께서는 학생회관 321호로 오세요. 불자님들 집안에 평안과 불자님들의 소원성취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성불하세요.

〈외불회〉

·생활협동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5월 20일(월) 성년의 날을 맞아 사랑하는 연인, 선배, 후배에게 선물할 향수 및 팬시 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생활협동조합〉

·상반기 TOEIC 설명회가 있습니다.
때: 5월 21일(화) 늦은 5시
곳: 신강의동 213호
내용: 토익이란
토익이 어떻게 각 기업의 채용시험이나 인사에 반영되고 있나.
TOEIC의 고득점 전략.
교내 ELS, TOEIC 특강의 특성 및 효율적인 이용방법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

·TIME 학술세미나 및 집 돌아오는 날(HIME COMING DAY)이 열립니다.
학술세미나
기간: 5월 21(화)-5월 23일(목)
곳: 도서관 3층 세미나실
내용: 5월 21(화)-중동
5월 22일(수)-미국
5월 23일(목)-중국
·시사문제에 관심있으신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집 돌아오는 날 (HOME COMING DAY)
때: 5월 24일(목) 이른 10시
곳: TIME 동아리방

〈TIME〉

□찾아주세요

·카세트를 찾습니다.
빨간 손가방안에 가요테잎과 PANASONIC제 카세트가 들어있습니다.
연락처: 012-329-12649

〈무지무지 슬픈이〉

이문벌

□알립니다

·제23회 LISTENING CONTEST
토익보다 앞선 영어 듣기평가의 원조!
그것이 바로 외대 ALA의 LISTENING CONTEST입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식의 TEST를 경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때: 5월 21일(화) 늦은 5시- 6시
곳: 시청각건물 403호
참가비: 2000원
접수: 학생회관 4층 AL A룸(당일 접수가능)

〈ALA〉

·통일정대 새내기여러분 학생회비를 냅시다.

〈통일정대 학생회〉

·외대 통기타 봄정기 공연이 열립니다
때: 5월 22일(수) 늦은 6시
곳: 대학원 소강당

〈통기타반〉

·MBC 청소년 음악회관계로 21일(화) 외대내 모든 차량을 전면 통제합니다.

〈총무처〉

·민속악 놀이반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호남우도판굿을 선보일 예정이랍니다. 학우 여러분들 좋은 공연 놓치지 마세요
때: 5월 20일(월) 늦은 5시
곳: 노천극장

〈민속악 놀이반〉

□감사합니다

·중국어과 여러분. 삶을 노래하는 중국어과 노래패 '못갖춘마디'가 통일노래한마당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중국어과 노래패〉

□축하합니다

·5월 21일은 불어교육과 93학번 이윤주님의 탄신일입니다. 학부생으로서의 생일도 올해가 끝이래요. 모두 축하합시다.

〈윤주를 아는 모든이〉

□수고하셨습니다

·대동제 기간동안 함께했던 모든 풍물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외대 풍물패 연합(건)〉

·96 희망의 대동제 개막식과 통일노래한마당을 멋지게 준비하신 이문동 노래일꾼 여러분께 힘찬 박수 보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외대 노래창작단 청년〉

·대동제를 함께한 상대 학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대 학생회〉

□찾아주세요

·지난 13일(월)에 학생회관 2층 화장실에서 지갑을 잃어 버렸습니다. 검은 장지갑인데, 5만원짜리 상품권과 지하철 정액권이 들어있고 그 이외에도 현금 17,000원이 있었습니다.
연락처: 015-973-7687

〈지갑이 보고픈이〉

'비들기 철판'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연락주십시오 광고료는 없답니다.
하이텔, 천리안: OEDAE 나우누리: 외대총학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2층 (0335)30-4112

대학단신

용인

박창희 교수 후원회 창립총회 열려

지난 16일(목) 늦은 7시 신갈의동 207호에서 박창희 교수와 장기수·양심수 후원 사업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을 후원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박창희 교수의 자제인 박정아, 박재혁씨의 감사문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사학과 회장 이영기(3)군이 박창희 교수의 사회적 활동, 양심수 현황 등을 설명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마무리됐다.

후원사업회의 주요 활동내역으로는 △꾸준한 면회와 편지보내기 △일간지와 주간지 광고를 통한 여론화 작업 △일일찻집과 주점 등 각종 수익 사업 등이다. 특히 이번 대동제에서는 오는 29일(수) 박창희 교수 후원회의 밤 행사와 기간내내 선전거리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이영기군은 "지금까지 활동이 미약했던 박창희 교수 후원회를 과 차원이 아닌 모든 학생이 발로 뛰는 후원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동양학대 체육대회 20, 21일

800학생의 친선도모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동양학대 체육대회가 오늘(20일)부터 21일(화) 양일간 대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체전에서는 발야구·팔씨름·말뚝박기·닭싸움·줄다리기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된다. 또한 종합우승 및 종목별 우승팀에게는 기타·선풍기·앰프 등이 수여된다. 동양학대 학생회장 남태원(아랍어·4)군은 "체전을 성황리에 치뤄 단기적으로는 한총련출범식에서, 장기적으로는 1년 사업까지 이어갈 수 있는 학생회 강화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총학, 5·18기념 강연 개최

5·18 정신계승 기념주간을 맞이하여 총학생회는 지난 16일(목) 목요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광주전남연합에 있는 서일환씨가 강사로 초청되어 '미국과 신군부간의 공조체제'에 대해 두시간동안 강연했다.

이 행사를 준비한 총학생회 정치기획국장 민정원(인문·언어 4)양은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5·18에 대해 재고해 보는 기회가 됐다"라고 행사를 평가했다.

'청년회의' 창립대회 오늘

조국사랑 선봉대가 오는 20일(월) 오후 6시부터 노천극장 앞 잔디밭에서 '청년회의'라는 명칭으로 창립대회를 갖는다.

그간 선봉대는 학생들의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생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세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청년회의'로 개칭·결성됐다.

이번 대회는 청년회의 창립선언에 대한 연설에 이어 총학생회장 이재규(자연·화학 4)군과 부총학생회장 나정환(동구·체코어 4)군의 축하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

청소년 음악회 열려

"세계를 호흡하는 젊은 가슴"이라는 모토아래 MBC 청소년 음악회가 오는 21일(화) 7시 30분부터 90분간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개교기념 행사 및 성년의 날과 맞물려 본교 홍보를 목적으로 열릴 이번 행사에는 솔리드, 패닉, Ref 등 대형가수의 축하공연과 함께 본교 동문 연예인 최수종(무역학과, 81학번), 안성기(베트남어과, 70학번) 송승환(아랍어과 76학번) 등이 출연하여 대화시절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본교 외국인 교수단 50여명의 합창순서도 있을 예정이다.

이 행사와 관련 홍보과 박선영씨는 "당일 모든 차량을 출입통제할 계획이므로 직원교수들의 양해를 바란다"라며 "외대가족들과 지역주민이 한자리에서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길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재학생들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해 초대권없이도 출입할 수있게 할 것이며 외부인들은 단대 교학과에서 초대권을 배부하고 있다.

후생과 '잔반 없애자' 캠페인

"더 드실수는 있습니다만 남기지는 맙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후생과 직원들과 식당자치위원회 학생들은 지난 16일(목) 잔반통없는 날로 정해 캠페인을 벌였다.

현재 하루 평균 잔반은 400L이상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다. 이는 학생식당원가에 포함되어 학생들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 된다고 한다. 한편 학생식당은 김치, 단무지에 이어 밥도 자유배식을 하며 그대신 밥량을 줄일 예정이다.

후생과 과장 홍종률씨는 "교수식당에는 전에 캠페인을 벌였는데 반응이 좋았다"라며 "학생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보건소 공사 마무리

지난 4월 22일(월)부터 시작한 보건소 개선을 위한 공사가 5월 13일(월) 마무리되고 오픈식을 가졌다. 보건소 환경개선과 검사실 확충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공사후 보건소의 기능은 예방접종 및 광소 정밀검사로 확대될 것이다.

보건관리담당 이인기씨는 "본교 보건소는 타대학에 없는 개인 보건기록카드가 있어 입학때부터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는데 학생들은 잘 이용을 못한다"라며 "앞으로 보건소는 건강상담기능과 정보기능을 높일 것이다"라고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대동제 속에 핀 외대발전 염원을 모아

제작 사진부

두더지 잡기 동대에서 진행한 아시안 빌리지 행사의 하나로 '물두더지 잡기'가 붉은 광장에서 있었다. '03에게 물벼락을' 과 함께 뜨거운 대동제를 식혀주는 시원한 행사였다.

그때 그 시절 외대는… 이문동 곳곳은 열사의 거리, 인권의 거리, 투쟁의 거리 등이 진행됐고, 각 주제에 맞는 대자보와 사진이 전시되었다. 사진은 동양어대에서 주최한 외대 투쟁사 대자보를 유심히 보고있는 한 학생의 모습이다.

투쟁실습 15일(수) 오후 도서관 앞에 진압경찰이 나타났다. 나무방패와 트럭 페페포그로 무장한 진압경찰과 스티로폼 파이프와 물풍선으로 대항하는 학생측으로 나뉜 격렬한 모의가두투쟁이 정책과학대 주최로 열렸다.

잊을 수 없는 맛 각과와 동아리 및 단대에서는 주점과 먹거리 장터가 곳곳에서 열렸다. 대동제 분위기를 한층 무르익게 한 먹거리 장터에선 한국어교육과가 마련한 '꼽기'가 단연코 인기였다.

살바싸움 대동제 기간 도서관 앞에서는 민속씨름대회가 벌어졌다. 뜨거운 햇살아래 모래판에서 서로의 살바를 쥔채 벌인 힘겨루기는 많은 호응이 있었으며 특히 여자전은 긴시합끝에 승부가 결정나 구경하던 학생들의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이사람

□박창희교수와 장기수·양심수 후원회 사학과 대표 이영기군을 만나

"저희가 박교수님 곁에 가까이 있겠습니다"

"우리보다도 재판부나 검찰이 박교수님의 무죄를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박창희 선생님과 장기수·양심수 후원 사업회 사학과 대표를 맡은 이영기(4)군의 말이다.

지난 16일(목) 용인캠퍼스 신갈의동에서는 박창희교수님과 장기수·양심수 후원사업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박교수님께서 아드님에게 '학교학생들과 자꾸 멀어져 가는 것같아 제일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셨답니다. 이런 연유로 작년부터 후원회 건설이 제기됐고 방중과 개강이후 지속적으로 후원회 건설을 준비, 드디어 빛을 보게됐지요"라며 창립의의를 밝혔다.

"앞으로 후원회가 벌일 사업은 후원회 회원이 교수님에게 편지보내기와 면회 자주가기입니다. 그래야지 교수님이 멀어진다는 생각을 안하시겠지요." "아울러 각종 선전사업과 일일찻집, 주점을 통한 수익사업과 소식지 발간 사업도 벌여나갈 것입니다"라며 한가지 사업을 덧붙였다. "교수님뿐만 아니라 양심수, 장기수들을 억울하게 옥살이 시키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사회악법과 제도 철폐·개정투쟁을 벌일 것입니다"라며 사업계획을 밝혔다.

현재 사학과 과회장이기도 한 이군은 "학부제 영향으로 과에 대한 소속감이 별로 없는 96새내기들이 교수님의 무죄를 확신하며 교수님이 석방될때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결의하는 모습들이 지금 저뿐만 아니라 사학과 선배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라며 "박교수님도 이소식을 들으면 기뻐하시겠지요"라고 후배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선생님의 무죄는 이제 믿음 차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선생님의 무죄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의 실추된 명예회복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선생님이 검찰과 언론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까?"라며 말하는 모습을 보며 박창희 교수님이 우리곁으로 돌아오셔서 강단에 설 날도 멀지 않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병수 기자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1996학년도 후기 각 대학원 학생모집

대 학 원(☎ 961-4104, 962-7117)

1.모집과정 및 학과인원

가.석사학위과정(6개계열 39개학과): 각 학과 약간명

어 문 학 계: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아어, 일본어, 아랍어, 이태리어, 헌디, 국어국문학, 포르투갈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동유럽어문학, 언어학, 스칸디나비아어

인문과학계: 철학, 사학

지 역 학 계: 아주지역, 중남미지역, 중동지역, 동구지역, 북미지역, 아프리카지역, 서구지역

사회과학계: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이 학 계: 수학, 물리학, 화학, 통계학

공 학 계: 컴퓨터공학

나.박사학위과정(6개계열 24개학과): 각 학과 약간명

어 문 학 계: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아어, 일본어, 아랍어, 국어국문학, 언어학

인문과학계: 철학,

지 역 학 계: 국제관계연구학

사회과학계: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이 학 계: 수학, 물리학, 화학

공 학 계: 컴퓨터공학

2.특별전형(석,박사 학위과정)

1)지원자격

가.석사화위과정

ㄱ.대학의 전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3.00/4.00, 3.50/4.50이상인 자

ㄴ.특전: TOEFL, TOEIC 및 제2외국어에 능통한 자는 10% 가산점을 부여함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박사학위과정

ㄱ.국내,외 대학원(전문, 특수대학원포함) 석사학위과정에서 박사학위과정 지원학과와 동일한 전공분야를 이수한 자로서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자

(1)국내,외 대학에서 동일계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자 및 '96년 8월 취득예정자로서 전학년 성적평균평점이 A이상인 자

(2)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전임교원

(3)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ㄴ.특전: 국내,외 일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대학원에서 인정받을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음

2)원서교부: '96년 5월 16일(목)부터 5월 27일(월)까지

3)원서접수: '96년 5월 22일(수)부터 5월 27일(월) 17시까지

4)시험일시: '96년 6월 1일(토) 오전 10시

5)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

3.일반전형

1)원서교부: '96년 5월 16일(목)부터 6월 10일(월)까지

2)원서접수: '96년 6월 4일(화)부터 6월 10일(월) 17시까지

3)전형일시: '96년 6월 15일(토) 오전 10시

4)전형방법: 필답시험 및 구술시험

가.석사과정: 1)전공 2)영어(단, 영어과는 제2외국어) 3)구술시험

나.박사과정: 1)전공 2)영어 3)제2외국어(영어과, 국어국문학과, 언어학과, 철학과, 법학과에 한함) 4)구술시험

세계경영대학원(야간)(☎ 961-4109)

1.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각 학과 ○○명

2.모집학과: 가. 경영학석사 - 국제통상학, 국제경영학, 해운경영학, 정보관리학, 보험경영학, 증권금융학

나.경제학석사: 국제경제학, 세계지역연구학

3.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4.원서교부 및 접수: '96년 6월 10일(월)부터 6월 25일(화)까지

5.전형일시: '96년 6월 29일(토) 오후2시부터

* 국가 고급공무원 및 기업체 간부는 특별전형함
* 해운경영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는 해무사 시험에 특전이 있음
* 비 상경계 전공자도 입학할수 있음. 재학생 25%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실무경험이 다년간 있고 재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분은 특별우대함
* 국가공무원 및 군·경·각급학교 교직원에게 수료시까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교육대학원(야간)(☎ 961-4116, 963-6881)

1.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 각학과 약간명

2.모집학과: 국어교육, 영어교육, 불어교육, 독어교육, 서반아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러시아어교육, 역사교육, 윤리교육, 철학교육, 상담심리, 교육행정, 상업교육, 유아교육, 전자계산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3.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4.원서교부: '96년 6월 3일(월) ~ 6월 14일(금)까지

5.원서접수: '96년 6월 10일(월) ~ 6월 14일(금)까지

6.전형일시: '96년 6월 22일(토) 오전 10시부터

7.특 전

* 현직교사에게는 수료시(5학기)까지 수업료의 25%를 감면함
* 현직교사(시간강사포함)의 자격 및 경력은 서류전형시 반영됨
* 재학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함

정책과학대학원(야간)(☎ 961-4093, 962-3950)

1.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명

2.모집학과: 공공정책학과: 공공정책전공, 공공행정전공
공공감사학과: 공공감사전공
외교안보학과: 외교안보정책전공, 북한학전공
신문방송학과: 신문전공, 방송전공
광고홍보학과: 광고전공, 홍보전공

3.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4.원서교부 및 접수: '96년 6월 3일(월)부터 6월 24일(월)까지

5.전형일시: '96년 6월 29일(토) 오후 2시

6.제출서류: 입학원서(소정양식), 명함판 사진 4매, 졸업,성적증명서,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1부

7.특 전

* 전공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 국가공무원(군·경포함)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기행문 - 그 섬에 가고 싶다 '백령도'

'일상의 나'로 부터 떠나는 일주일간의 여정

백령도라면 기상예보에서 들어본 섬이렷다. 비록 1박 2일이지만 나의 틀을 떠나 먼 섬으로 떠나고 싶은 유혹을 따르기로 한다. 3월 29일, 새벽부터 서둘러 섬에 도착하니 해병대에서 마중을 나오셨다. 소풍나온 아이들 마냥 들뜬 우리 일행은 여단본부에서 백령도와 해병대 홍보필름을 본 후, OP에 올랐다. 두터운 해무로 더욱 아득해 보이는 북녘땅. 인천보다도(173km) 가까워(원래도 11km, 평양 143km) 북한과 중국 견제의 최전초기지로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느껴졌다. 호국관과 6.25 당시 돈키부대의 막사를 거쳐 숙소로 향한 곳은 해병대 내무실. 짐을 부리고 말로만 듣던 '짠밥'을 맛나게 해치우고 나니 주위가 어둑어둑하다. 일정대로 '장병과의 대화' 시간이 됐으나 어쩐지 어색하고 불편했다. '요즘 서울은 어떻습니까'로 운을 띄우는 장병들에게서 군대간다고 송별회를 치르고, 휴가 나와 씩스럽게 웃던 남자동기, 선후배들의 모습을 읽는다.

요식행위로 여겨 거부감을 가졌던 일행들도 막상 정해진 시간을 다해서는 아쉬워했다. 낯선 기상나팔, 아침 6시 30분, 서해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내려 인천항에서 배가 뜨지 않는다는 전갈이 왔다. 심창진의 실제 무대가 될만큼 파도가 거칠기로 유명하다는 말에 풍랑이 일어 푹 쉬게 되었으면 하고 농담을 나누긴 했지만 두고온 서울의 일들이 조바심났다. 파도와 우뚝선 기암괴석이 장관인 두무진과 사곶해안. 없는 일정을 만들어 배려해주셨지만 일행은 다들 부은 얼굴을 하고 다닌다. 입시면접 시험을 놓친 이부터 저마다 일상의 일탈이 더이상 즐겁지 않게 된 것이다. 홍돌과 태양석을 찾느라 고개를 떨구고 해변을 뒤지느라, 바닷바람과 모래에 우리 모습이 변해가는 줄도 몰랐다. 단벌옷에다가 제대로 씻지를 못해 후줄그레 헤집수 밖에. 속소를 옮겼지만 섬 전체가 군사지역이라 유일한 변화요, 나들이였다. 돌아보는데 30분도 안걸리는 짠촌거리의 상점을 매일같이 들쑤시고 다니는 사이, 백령도 지리를 휘두루 꿰게 되었다. 종일 바람자기만을 기다리기를 이레째, 배가 뜬다는 소식에 여장을 꾸리는 마음이 묘했다. 섬이란 하룻밤만 파도소리를 배게삼아서 자면 정이 확 붙는거려니,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1박 2일이 6박 7일이 될 줄이야. 무위도식의 170시간동안 손님이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배가 뜨지 않으니 신문은 물론 가져간 책도 몇 없었고 전파 수신상태도 나빴다. 세상과 격리된 채 기약도 없이 그저 기다리는 게 우리 일이었다. 처음엔 비디오, 노래방 타령을 하던 철부지도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철저히 소비문화에 중독되었는지, 창조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이 결정한 운신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유세하듯 편한 잠자리와 소일거리를 요구하던 모습이 과연 어리광으로 보일 수 있었을까 싶다. 지천으로 남는 시간동안 분단조국의 현실은, 조국통일의 염원을 성토의 장에 쏟아붇 수도 있었으련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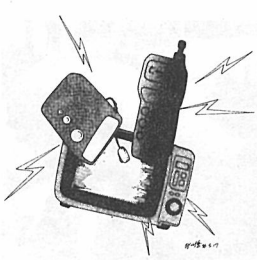
섬에서의 표류는 한달이 넘도록 여진을 남겼다. 그러나 마주치는 동지들의 눈빛에서 저마다 마음속 여운 또한 저마다 색다름을 느낀다. 부대끼며 든 정을 못잊어 새터로 모꼬지를 다녀왔고 학기말 다시 뭉칠 예정이다.

양캠퍼스 도합 60여명의 물사람들을 위해 시간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흑룡부대분들과 간호장교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억지로라면 견디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대신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잊고 살 때가 많다. 유난떨고 무시하며 기고만장한 '일상의 나'를 미련없이 떠나는 여행을 꿈꿔본다.

김 윤 정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영화평 - 코메디의 왕

"평생 쓰레기로 사는 것보다는 한순간이라도 왕이 되는게 좋지요"



소위 멀티미디어 사회로 일컫는 현대사회에서 사람에게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자신을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새롭게 자리잡게 된다. 이런 욕망은 비상식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채워지려 한다.
이 영화는 현대인의 유명해지고 싶은 심리를 다룬 영화이다.

1981년, 현실과 환상을 착각한 한 젊은이가 영화 '택시드라이버'를 보고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사건이 있었다. (이자는 또한 택시드라이버의 여주인공 조디포스터에게 생방송으로 구애를 하였다) '코메디의 왕'은 택시드라이버의 감독 마틴 스콜세지의 83년작으로서 당시 감독의 심정을 잘 대변해 주는 영화이다. 유명 코메디언 제리 랭포드(제리 루이스), 그리고 그의 토크쇼에 나오기 위해 결국은 그를 납치하는 정신이상자, 자칭 코메디의 왕 루퍼트 쥼킨(로버트 드니로) 이 영화는 그 과정을 어디까지나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루퍼트의 환상인지를 모르게 모호하게 그려나가고 있다. 특히 마지막 30분은 더욱 그러하다. 그 과정에서 감독은 유명해진다는 것의 대가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는 듯하다. 유명인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독은 비난의 화살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 정작 우리들의 삶은 없고 TV속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는 우리. 그런 우리들때문에 자신의 사생활까지 포기해야 하는 유명인들. 나는 이 영화를 커트 코베인이 자살했을 무렵에 보았다. 커트 코베인은 왜 자살했을까? 단순히 '얼터너티브 정신'에 순교하기 위해서? 아니다. 결국 그는 우리가 죽인 것이다. 그의 사생활이 담긴 잡지를 보며 즐거워하는 우리들. 그의 얼굴이 찍힌 티셔츠를 입으며 그를 신격화하는 우리들. 결국 유명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일뿐이다. 그리고 커트 코베인의 자살은 그의 '인간선언'이었다.

이 영화는 또한 현대인들의 '유명해지려는 욕망'을 잘 표현하고 있다. 납치극으로 TV출연에 성공한 루퍼트를 붙잡아가는 FBI요원이 루퍼트에게 묻는다.

"자네, 왜 이리 무모한 짓을 했나?"

이에 루퍼트는 대답한다.

"평생 쓰레기로 사는 것보다는 한순간이라도 왕이 되는게 좋지요"

앤디 워홀이 말한 '15분간의 인기'에 대한 대사가 아닐까?

영화보기는 때로는 괴로워야 한다.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악몽같은 이 한편의 영화로, '영화보기의 괴로움'을 만끽해보기 바란다.

김 치 완
〈동양 · 아랍어 1〉

사진수필

도서관 진입로에서, 식당 앞에서, 노천옆에서, 외대 곳곳에서 우리는 항상 선진일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학우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그들이 붓과 매직으로 발새워 쓴 대자보를 거는 순간 대화의 창은 열린다.
외대 발전을 얘기한 대자보가 학생처 직원들에 의해 뜯겨졌다. 깨어진 대화의 창에서 그들의 허탈함과 찢겨진 외대발전만이 느껴질 뿐이다.

한승주 기자

5월 22일은 반미의 날입니다

우리, 진짜 해방된 것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Levi's 를 입고 Coca-Cola 를 마시며 Marlboro 를 피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광주는 학살당했고, 농부의 두손이 성조기를 불태우고, 이땅 젊은이가 반미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진짜해방 조국 맞습니까?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